




# 한국패션협회 30년사

30 YEARS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한국패션협회**



KOREA FASHION ASSOCIATION  
CHAIRMAN

1985년 4월 12일, 대한민국 패션의 선진화를 위해 창립된 한국패션협회가 올해로 어느덧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패션산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산업인 섬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1970년, 1980년대에는 미주 및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조업

## 축사

### 한국패션협회의 '창립 30주년'

#### 모든 섬유패션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한국패션협회의 '창립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모든 섬유패션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패션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이용열 초대 회장님을 비롯해 공석봉 회장님, 원대연 회장님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패션협회는 패션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인 1985년에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합니다. 창립 이래 한국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를 위해 패션유통물류단지, 패션산업단지 건립 등의 패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해외전시회 지원, 패션 전문인력 양성, 신진디자이너 육성, 최신 경영정보 제공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패션업계로부터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특히 국내 내수 브랜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는 글로벌 소싱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과 선진화된 마케팅 시스템을 앞세워 국내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 중심으로 외화 획득에 앞장섰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패션 브랜드 전성시대를 열며 내수 경기 활성화와 함께 소득 3만 불 시대의 국민생활 선진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패션산업은 예술성, 창의성 그리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더욱 발전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문화 창조 산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혁명을 통해 탈탄소 경계, 초초연결로 급변하는 최근의 소비자 환경은 패션산업이 의류와 잡화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토털 리테일 시대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즉 "어려우면 바꾸고, 바꾸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역경易經』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 혁신하고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패션인들은 대한민국 문화 창조 산업의 첨병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외부적인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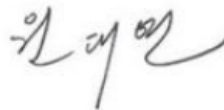
한국패션협회는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회원 간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동사업을 발굴, 이를 적극 추진해 나아감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공생과 공영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패션협회 30년사'는 한국패션협회가 설립된 이후 3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지난 19세기 개방 이후 국내에 불어 닥친 서구복식의 발전사를 정리한 매우 의미 있는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패션산업을 정리한 이 책자가 패션인 여러분 모두에게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지침서로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면서 발간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관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4월

한국패션협회 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김기호

## 축사

### 한국패션협회 30년사 발간을 경축하며

한국패션협회가 창립된 지 30년, 이를 기념하여 협회 30년사를 펴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협회 설립 이전에도 의상을 만드는 소모임과 몇몇 단체가 있었으나, 대체로 학술적이라든가 문화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985년 명동 유네스코 회관 10층 한 작은 방에서 협회의 업무가 시작된 이래 한국 패션산업의 재도약과 유럽 선진국, 특히 프랑스와 이태리 패션에 관하여,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고도의 기술, 경영, 유통 등을 터득하면서, 후진 양성과 함께 협회의 활동은 끊이지 않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패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이라는 것을 정부와 일반 국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원대연 회장은 최고경영인의 식견과 더불어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면서 패션산업 부문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패션협회가 더욱 더 성장하여 우리나라 의류 디자인, 패션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렛대가 되리라 기대하며, 협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부처, 서울시, 섬유산업연합회, 백화점협회, 학계 등 모든 분들에게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사 발간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대연 회장과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패션협회  
초대회장

이동연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패션협회가 준비한 '한국패션협회 30년사'에는 패션산업의 발전 비전을 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디자이너 육성과 더불어 문화와 한류 콘텐츠가 접목된 글로벌 브랜드 육성은 한국패션협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낮은 인지도와 취약한 마케팅력 때문에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30주년의 뜻 깊은 역사는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패션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K-Fashion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패션협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패션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축사



한국패션협회  
전임회장

김현모

국민소득이 78불에 불과하던 시절, 당시의 정부정책은 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문제에만 전력투구하던 시절이었기에 입는 문제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였다. 국민소득이 1,000불만 되면 소비자들이 패션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 당시의 선진국들의 패턴이라고 하였다. 1977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불을 달성하면서 일인당 국민소득도 간신히 1,011불이라는 실적을 올렸고, 선진국의 소비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때가 되기도 하였다.

1972년에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9년에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하드웨어를 감안한 시설문제였을 뿐이었고 패션에 대한 관심은 한 줄도 없었다. 도리어 패션 제품조차도 봉제품이란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국민소득 3,000불이 되면 소비자들은 필연적으로 브랜드를 찾게 된다고 하였는데, 브랜드는커녕 외국의 브랜드 도입도 정부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고, 그나마 대기업에서 한두 가지 시범적으로 들여왔던 브랜드조차도 소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 원가조사를 하고, 패션제품의 표준 판매제를 시행하려는 등 터무니없는 시책도 있었다.

1985년은 패션협회가 결성되던 해이다. 일인당 GNP가 2,242불에 불과하던 당시는 아직도 신군부에 의하여 통치되던 시기였고, 따라서 패션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았다. 패션이라고 하면 강남에 사는 돈 많은 유한마담들이 할 일 없이

싸돌아다니며 사치를 일삼는 한 행태라고만 취급되던 시기였기에, 패션쇼 같은 것은 정부 시책과 어긋나니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내려왔다. 그래도 배짱 좋게 겁 없이 패션쇼를 한번 하였다가 세무사찰을 되게 받고 문을 닫은 업체도 있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패션협회 같은 단체가 결성되기가 쉽지 않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패션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국민소득 3,000불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패션협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용열 회장을 위시해 패션을 생각하는 선각자들의 울퉁은 판단에 의한 결과였다.

1989년 ‘섬유산업 제도약의 길’을 찾던 중에 본인이 패션분야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때 패션의 중요성과 그 비중을 강력하게 설파하면서 겨우 패션이란 용어가 표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되어 차후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풀리면서 자유화되었다. 그 동안 협회를 이끌어 왔던 업계 여러분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30년을 이끌어 온 많은 선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거침없는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축원한다.

# contents

## contents

발간사  
축사

### 제1부 한국패션협회 30년사

1985

한국하이패션협회 창립  
이용열 회장, 디자이너 해외진출 위해 창립 밀어붙여  
창립 후 사업구상  
이정민 여사의 헌신적인 내조  
회원 자격 갈등 불거져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찰단 파견  
패션정보실 운영 및 정보지 발간 추진  
협회 창립기념 패션쇼 개최

1986

동경 국제패션박람회에서 부자재 고급화 필요성 절감  
제1회 서울국제여자기성복 박람회 개최  
고가 하이패션 제품 배정쿼터 확인요령

1987

해외진출 지원의 다각화 추진  
목화이가씨 코튼의상 발표회  
고가 하이패션 제품 배정쿼터 확인실적 증가

1988

지안 프랑코 페레 특별 패션쇼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한국 섬유제품 순회 전시회 개최  
중복장애 맹인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

1989

하이패션협회 사무실 무역센터로 이전  
소득표준을 인하를 위한 대정부 건의  
서울컬렉션 상표 등록

1990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의 위기  
종합상사 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비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 통합, 한국패션협회로 새 출범

1991

공석봉 금강모방 사장, 3대 회장에 취임  
협회보 월간 『패션코리아』 창간  
패션정보 세미나 개최  
각종 정책자금 배정 추진

1992

사무실 이전  
패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 개최  
KBS에 패션 관련 보도 요청, 9시 뉴스에 첫 방송

1993

엑스포 패션 페스티벌 참여  
현대여성의 소비실태 보고회 개최  
한국어패럴봉제협회 해산에 따른 반사이익 누리

1994

유기재 상근 부회장 부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제12회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 개최  
코파 컨벤션 개최와 스트리트 패션 자료집 발행  
각종 정책자금 배정 지원

1995

한국패션협회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한국패션총람 발행  
삼풍백화점 피해업체 보상

1996

워크숍 형태의 패션인 재교육 실시

2000

밀레니엄 여성경제인 패션대전  
서울컬렉션 아셈 패션 갈라쇼  
서울컬렉션 개최

2001

패션 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 2002

중국 여성의류 시장 조사사업 실시  
2002 월드컵 기념 한일 패션 페스티벌

## 2003

패션 물류단지 건립 추진  
아시아패션연합회(AFF) 발족  
월드 디자이너 육성사업 실시  
월드 디자이너 실패가 주는 교훈

## 2004

원대연 SADI 학장, 한국패션협회 6대 회장 취임  
전장부 상근부회장 선임  
패션협회, 체질 개선과 재무구조 개편에 나서  
패션협회 홈페이지 소통 형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사업과 세미나 강화로 회원사에 어필  
원대연 회장과 패션협회의 인연  
최초로 연봉제 도입과 1인 1목표 실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해외 단체 교류  
이전 패션유통 물류단지 건립

## 2005

패션단체와 적극적인 교류 시작  
해외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지원 시작

## 2006

패션협회 산하에 중국위원회 발족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한불패션특별전'

## 2007

김인수 상근 부회장 취임  
복종별 경쟁력 강화에 주력  
충주 패션산업단지 건립 추진

## 2008

코리아 패션대상 시상식  
강남 패션페스티벌 행사 운영  
'패션, 문화를 만나다' 서울역사 패션쇼  
패션정책 아이디어 뱅크, 전략위원회의 출범

## 2009

대의 활동과 정책 진의로 패션업계 이익 대변  
패션 화두에 대한 고민, 글로벌 패션포럼  
패션 관련 자료집 발간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패션쇼  
한국 패션 100년 의상전시회  
해외 패션전시회 및 해외 컬렉션 대규모 본격지원  
구두·가방업체 지원 위해 성동 토털패션 지원센터 운영  
한국패션협회와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 통합

## 2010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장 활동  
패션네토리아 통한 온라인 정보 발신 강화  
'패션, 문화에 몰들다'

## 2011

패션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제1회 한국패션 100년 어워드 성황리 개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젊은 디자이너를 위한 인디브랜드페어 개최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 주관  
김명호 상근 부회장 취임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총회 개최

## 2012

유통 합리화 활동으로 판매 수수료 인하  
제1회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마케팅과 세일즈 강화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동대문 수출지원센터 운영  
에너지 절약형 '휘들웃' 공동사업 진행  
패션협회 사무국, 사무실 매입 이전  
김기산 협회 상근 부회장 선임

## 2013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자체 민간사업 발굴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  
제4회 인천 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환영 행사  
서울방송 '패션왕코리아' 제작 방영  
'명품' 대신 '해외 고가 수입품'으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 2014

제조-유통 상생협의회의 활동  
백화점-패션업계 실무자 능력향상 워크샵 실시  
하남 패션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패션산업 해외 마케팅인력 양성사업 실시  
봉사정신으로 10년간 사심 없이 패션계 발전을 위해 노력

## 제2부 한국현대패션사

### 1. 개화기의 패션

1-1 복식으로 개혁 이룬 개화기  
두루마기의 끈질긴 생명력  
19세기 말 복식의 혁명적 변화  
젊은 개혁파의 흑라사 착용  
개화파들이 복식 개혁에 집착한 이유  
양복과 한복의 이중 복식 구조  
유럽과 백성들의 단발령 반대  
모단걸, 모단보이  
1-2 개화기의 남성복 패션  
1-3 개화기 여성복 패션  
국내 최초의 양장점과 속옷  
장우대신 두루마기를 착용한 여성들  
부녀자들이 우산을 쓴 이유  
1-4 일반 평민들의 복식  
갑오경장과 개화 집신  
개화기 남성들의 평상복, 색 코트

### 2. 1940년대 패션

해방의 기쁨과 백의민족  
백의 착용에 대한 일제의 방해  
미군정을 통한 미국 패션 문화 유입  
마카오 신사와 양장점의 탄생  
빨간색의 유행과 코트용 두루마기 유행

### 3. 1950년대 패션

한국 전쟁과 구호품 패션  
플레이스커트와 벨벳의 유행  
양장과 한복이 공존하는 이중 패션 구조  
한국 패션의 대모 최경자 여사  
디자이너 맞춤 양장점 시대 개막  
사단법인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창립  
패션 1번지 명동의 급부상  
최초의 여성복 패션쇼와 바자회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 패션 수용

### 4. 1960년대 패션

섬유산업, 전략적인 수출주도 산업 역할  
국내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스타 패션의 원조 윤복희와 미니 일품  
패션쇼의 대중화로 유행 전파  
신생활복에서 사넬 라인까지 패션의 다양화  
최초의 국제 패션쇼 개최  
한일 친선 패션쇼로 국제적 패션 교류

### 5. 1970년대 패션

섬유산업의 도약과 패션산업의 태동  
기성복 산업의 태동과 패션쇼  
미니, 미디, 맥시의 3M 시대  
정부의 미니스커트와 장발 통제  
유니섹스 패션 산업의 확장  
청춘 패션의 대명사로 부상한 진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  
이성복에 붙어온 남성화 바람

### 6. 1980년대 패션

올림픽 축하 패션쇼 퍼레이드  
인터내셔널 패션 시대의 개막  
다양화로 대중들의 패션 욕구 자극  
영 캐주얼 시장과 스포츠 웨어 부각  
대형 패션기업의 탄생  
고감도 캐릭터브랜드의 등장과 하이패션협회 창설  
패션정보지의 등장과 아트웨어전 개최  
패션의 세분화와 컬러를 부각시킨 브랜드의 등장  
남성복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 등장  
광고 마케팅으로 완성시킨 덕다운 봄  
패션모델 법인과 활발히 추진  
모델계의 양대 산맥, 이재연, 도신우

### 7. 1990년대 패션

내셔널 브랜드의 절정기  
패션업체와 유명 디자이너의 전략적 제휴 활발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진출  
수입 브랜드 러시아와 새로운 유통 등장  
X세대와 스타 패션  
패션타운으로 변신한 동대문 시장  
패션정보 시대 도래로 패션정보 회사 성업  
미니멀리즘과 공주 패션  
패셔니티와 젠 스타일

### 8. 2000년대

한류 문화의 세계 진출  
패션 유통의 복잡 다각화 경향  
내셔널 브랜드의 글로벌화 실현  
과감한 스포티 캐주얼 강세  
베이직이 된 스키니 팬츠와 미니멀리즘  
한국 패션의 성공적 해외 진출  
세계 2위 아웃도어 시장의 급성장  
한국패션에 몰려오는 차이나 머니  
해외브랜드 인수통합 글로벌기업 도약  
지속가능과 에티컬 패션

## 제1부 한국패션협회 30년사

30 YEARS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 1985

### 한국하이패션협회 창립

대한민국 패션계의 창의력과 노하우를 집결시켜 고급 여성의류의 수출을 늘리고 패션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에 이바지하고자, 하이패션을 전업으로 하는 33개 업체들로 1985년 4월 12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한국하이패션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이용열 디자이너가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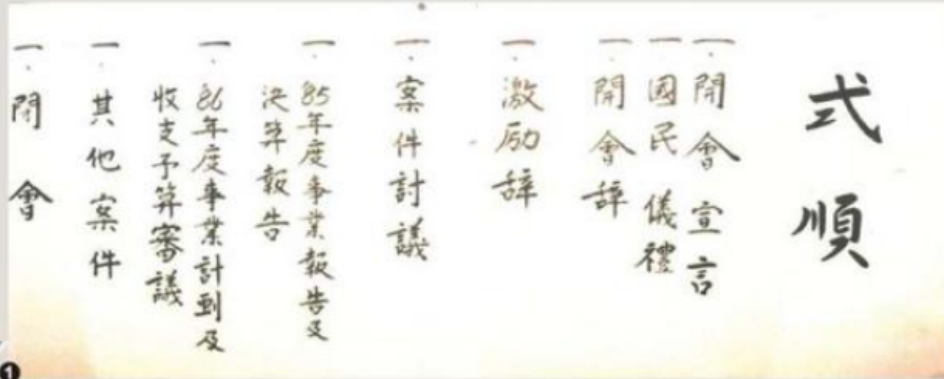
이듬해 공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1986년 10월 2일 공업발전법 제2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에 의거, 특별법인 한국하이패션협회로 전환하고 상공부로부터 정관개정을 승인받았다. 창립 당시 정관 제3조에 "본회는 공업발전 시책에 협력하여 의류패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1985년 6월 17일, 효율적 업무 추진과 회원사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을 위하여 서울 중구 명동 2가에 소재한 유네스코 빌딩 10층 1003호에 협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국장으로 김정자 국장이 선임되어 두 대의 전화(757-7966, 7)를 개설하고 직원 세 명의 책상을 구입하였다. 또한 협회 설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현판을 제작하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주간섬유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협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은 강성범, 강숙희, 김승자, 김재권, 김정은, 김창숙, 노라노, 리미원, 문광자, 문영희, 박운정, 박재원, 박향치, 배용, 손석화, 신도자, 신봉자, 안운정, 양은배, 윤성길, 윤순모, 이강숙, 이광희, 이규태, 이병복, 이신우, 이용열, 이원재, 장명자, 최복호, 최현숙, 한혜수, 허준 등 33명이었다.



1985년 6월 27일에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회의원, 상공부, 유관기관, 업계, 학계, 언론, 주한 외국공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후 하이패션협회는 회원사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창립총회 당시 33개사였던 회원사가 85년 말에는 17개사가 신규 가입하여 1년도 안 되어 50여 개 회원사로 외연을 확대하게 된다.



창립총회 전경



- ① 창립총회 식순
- ② 창립총회 안내문
- ③ 특별법인 한국하이패션협회 전환 상공부 승인 공문
- ④ 한국하이패션협회 허가증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씀 하시는 이용일 회장



창립총회 의견 개진하는 이정민 여사

## 이용열 회장, 디자이너 해외진출 위해 창립 밀어붙여

당시 새로운 군사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나온 정부 정책은 디자이너의 활동에 무척이나 폐쇄적이었다. 즉 외국에서 친지나 지인이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어야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서양복을 만들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하이패션협회 창립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지만, 협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열 회장이 창립 이후 IWS 한국지부 공석봉 대표를 하이패션협회 고문으로 선임한 것은 그간 IWS를 통한 디자이너 해외초청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는 디자이너가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하이패션협회가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특별자금을 만들어 저리로 산업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쿠퍼 배정도 해주어 회원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상공부 산하에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에만 허락을 해주었지 양장점 주인으로 인식되던 디자이너들이 모인 사단법인은 애초부터 중과부적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1년 넘게 공무원을 만나 패션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고부가가치임을 인식시켰고, 결국 하이패션협회가 생기면서 관료들도 패션을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용열 회장과 그 동기들의 노력도 있었다.

하이패션협회가 추진된 또 다른 이유로는 유통구조 문제도 있었다. 지금도 본질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당시는 더욱 열악했고 제품을 주먹구구로 생산했다. 그러다 보니 잘 팔리면 다 행이지만 팔리지 않으면 재고로 남아 낭패였다. 결국 재고가 발목을 잡는 방법으로는 하이패션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파리 프레타포르테였다. 즉 1년에 두 번, 시즌에 앞선 패션쇼와 전시를 통해 미리 주문을 받아 생산하면 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도 개인 혼자서는 어렵지만 하이패션협회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패션쇼와 전시를 동시에 진행한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가 아닐까 한다. 이를 통해 유럽-도쿄-서울로 이어지는 패션 벨트를 만드는 것이 당시 이용열 회장의 복안이었다.

한편 하이패션협회를 만들기 위한 정관은 파리 프레타포르테를 진행하는 디자이너들의 단체인 파리의상조합 정관을 참조했다. 당시 이용열 회장의 머리에는 유통이 바뀌어야 개인도 살고 산업도 산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도쿄의 지인조차도 너무 이르다고 지적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앞선 사고와 행동이었다. 지금에야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을 동료 디자이너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80년대 들어 하이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이패션협회가 만들어지고 63빌딩에서 처음 패션쇼와 전시회를 믹스한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를 열 때도 사전에 이용열 회장이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다. 즉 유럽의 유통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고 직접 패션쇼와 전시 부스를 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한다. 당시는 왜 6개월이나 앞서 옷을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하이패션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는 데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이패션협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디자이너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 패션계 인사는 이용열 회장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당신은 2대 회장을 맡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청담동에 있던 일부 디자이너들로부터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했던 디자이너들도 그가 회장에 취임하자 하이패션협회에 가입을 했다.

## 창립 후 사업구상

하이패션협회는 이용열 회장을 비롯하여 강숙희, 이신우, 이원재, 허준, 김승자, 양은배 등 하이패션 경영인을 중심으로 동경 컬렉션과 연계, 자체 자금 7천만 원을 들여 서울하이패션무역쇼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 패션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2천1백 평 규모의 염색가공(프린팅 포함) 시설 확보, 수출입업무 공동처리(무역업무 대행 및 쿼터 분배)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당시 우리 디자이너들은 국제 감각이 떨어지고 바잉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비싸게 팔 생각만 하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용열 회장은 부단하게 교육을 시켰다. 수출용 가격은 국내 소매가격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디자이너는 그리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온 일본의 바이어들도 수출 의지는 없이 쇼만 하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결국 지속적인 교육과 해외시장에 대한 시찰,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돕는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는 한국 패션의 국제화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하이패션협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하이패션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패션이 사치산업이라는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KBS에서 이용열 회장 앞으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미 대본이 짜여 있는 인터뷰였다. 외국 브랜드를 수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멘트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용열 회장은 수입 브랜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쟁을 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결국 몇 년 가지 않아 병행수입부터 시작해 해외 브랜드는 물밀 듯이 한국에 상륙했다.

또한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사치를 조장하는 디자이너로 오해를 받아 인식도 좋지 못했다. 일본으로 모델 30명과 기자 15명을 대동하고 패션쇼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었으니 요즘 생각해도 큰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는 최경자 이사장과 지재원 기자도 함께 갔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세무사찰이 들어와 40명이 자택과 현대백화점 매장, 본사로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비록 중고였지만 벤츠를 몰고 다녀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디자이너 관련 기사를 광고라고 오해를 했다. 광고가 아닌 기사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 이정민 여사의 헌신적인 내조

80년대 초반까지도 당시 한국 사회는 남자 디자이너를 독특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 디자이너가 여성이 대다수인 패션계에서 하이패션협회 결성을 추진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그의 부인인 이정민 여사는 이화여대 신방과에 다닐 때 이용열 디자이너의 매장에 몇 번 들렀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졸업 후 잡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색 직업'이라는 타이틀의 기획 취재를 하던 중 남자 패션 디자이너인 이용열 회장을 인터뷰하게 된 것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정민 여사는 사업과 협회 설립 등으로 분주히 뛰어다녔던 이용열 회장의 옆에서 그가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을 일일이 챙기며 주변의 여러 의견들을 이용열 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하이패션협회 창립 이후에도 이정민 여사는 협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용열 회장을 옴으로 양으로 내조하였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회의 사업추진에도 일조하는 등 하이패션협회의 대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용열 회장이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디자이너들의 협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닐 때였다. 그래서 못하는 술도 마셔 가며 미팅을 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발기인 대화를 하고 나서 사단법인이 되기 위해 상공부 허가를 받는 데 1년 이상 걸렸다.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라 문화관광부에서 허락을 받는 것은 쉬웠지만, 상공부의 허락은 무척 어려웠다.

당시 이용열 회장은 집에 와서 차관까지는 도장을 받았는데 장관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낭패라며 안절부절 못 했다고 한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 기자 출신인 이정민 여사는 안면이 있던 조선일보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을 절절히 설명하였는데, 결국 다음 날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 사단법인이 되었다. 물론 그 국장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패션 디자이너들의 모임을 경제 부처가 사단법인으로 허락해 준 배경에는 이러한 이정민 여사의 내조의 덕이 컸다고 하겠다.

월간멋 선정 85 디자이너 수상소감을 발표중인 이용열 회장



하이패션협회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관료의 특성상 조심스러웠다. 특히 회원 자격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파리의상조합 정관을 토대로 협회의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엄격했다. 즉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서 디자인과 재단 등기와 예를 겸비한 자 중 주문복 및 기성복 생산을 꾸준히 해온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또 1년에 2회 30벌씩 패션쇼를 개최해야 하고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유럽처럼 패션쇼와 전시회를 통해 국내 개발 소재 및 부자재, 제품의 독창성을 바이어에게 선보이고 섬유산업의 디자인 발달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의사는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했다. 일부 강경 디자이너들은 하이패션협회 회원에 대학 교수들도 가입시키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용열 회장은 대학 교수들을 자문 역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업체가 없는 교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했다. 그러자 일부 디자이너는 그런 자신들의 의견을 상공부 관료들에게까지 부탁했다.



월간 멋 선정 85디자이너 수상 축하를 위해 모인 회원사들

하지만 상공부 관료를 만나 패션은 문화가 아닌 산업이라는 점과 하이패션협회의 설립 취지, 대학 교수의 회원 가입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했더니 결국 이용열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 기업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산업자금을 끌어오고, 백화점 입점을 추진하고 쿼터에 대한 권한이 생기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찰단 파견

하이패션협회가 창립된 이후, 이용열 회장이 제일 먼저 주목한 사업은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었다. 패션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하이패션협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상공부,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나간 것은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였다.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전시회지만 당시로서는 파리 전시회 참가 자체 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던 시절이었다.

창립 첫 해인 1985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된 '86 S/S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에 이열상사(이용열), 이신우, 배용패션, 창미사(김창숙), 보림상사(김승자), 리패션시스템(이광희), 양팡테리블(양윤지) 등 7개사가 참가했다. 행사 진행에 KOTRA 4천3백만 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천5백만 원, 참가업체 1천4백만 원 등 총 7천2백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2백5만1천 달러의 계약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 모두 3회의 한국관 패션쇼를 개최했다. 참가업체별로 7벌의 신제품을 선보여 한국산 실크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우수한 품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낮은 관계로 상담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니트 제품의 경우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산 하이패션 제품이 네임벨류가 없는 관계로 무리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많았다.

파리에 이어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섬유의를류박람회에 KOTRA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이열상사(이용열), 배용패션, 이원양행(이원재), 미세스로라(한계석), 도투말패션(박재원), 드맹패션(문광자), 변지유패션, 구유회패션, 양팡테리블(양윤지), 디나리부띠끄(이규례), 유선실업, 드가패션 등 모두 12개사가 참가하여 9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이루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스웨터, 블라우스, 재킷, 드레스 등의 하이패션 제품을 주로 출품하였는데,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한국 섬유제품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패션 선진국에 대한 시찰단 파견도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세계 패션 시장정보의 습득과 고가품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오사카 섬유의를류박람회와 연계하여 시찰단을 파견했다.

먼저 26명으로 구성된 파리 시찰단은 1985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15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를 참관하고 에스모드 파리 등의 교육기관 참관과 함께 크리스찬 디올, 랑방 등의 공장과 쇼룸을 견학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의 모다 인 전시를 참관하고 도무스, 에트로, 코모 실크 단지 등도 견학했다. 이어 20명으로 구성된 오사카 시찰단은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약 9일간 오사카 전시회과 도쿄 컬렉션을 참관하고 문화복장학원, 가네보 패션정보연구소 등을 시찰했다.

이러한 시찰단 파견은 하이패션 제품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신소재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국내 제품이 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의 시찰을 통해 홍보 및 정보 미비를 실감해 향후 하이패션협회의 사업추진 구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 패션정보실 운영 및 정보지 발간 추진

하이패션협회는 창립 2년차인 1986년부터 유행패션의 정보 제공과 방향 제시, 해외 유명업체와 기술정보 교환, 신소재 및 신제품의 비교 자료 제공, 해외시장 동향 등을 담은 정보지 발간과 정보실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하이패션협회의 열악한 재정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각종 세미나와 비디오 시사회 등을 통해 회원사에 패션정보를 제공했다. 1985년 5월 30일에는 회원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라노, 파리, 런던의 85~86 F/W 여성복 컬렉션 슬라이드 시사회를 개최했고, 6월 4일과 5일에는 기무라 히데오 일본섬유신문 편집부장을 초청하여 한일 패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일본과 세계 패션계의 동향을 소개해 큰 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 ① 1985년 오사카 섬유유통권선사회
- ② 1985년 추계파리박람회 참가시찰단
- ③ 1986년 추계파리박람회에 김경과국경과 참관중인 이영열 회장
- ④ 1985년 춘계파리여자기성복박람회 한국관 패션쇼
- ⑤ 1986년 추계파리여자기성복박람회 한국관 패션쇼

- ① 1983년 10월 국내 최초로 조규화교수가 발간한 패션정보지 목차
- ② 1986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순서
- ③ 1987년 10월 진행된 패션세미나
- ④ 1988년 12월 발간된 한국 전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행과 패션의식
- ⑤ 당시 발간된 정보지

# 服飾의 藝術性과 오늘의 모우드

国民大学校 造形大学 衣裳学科  
教授 曹 圭 和

## I. 服飾의 藝術性



스튜디오 리본 chanel 1951

⑤

## 협회 창립기념 패션쇼 개최

1985년 12월 14일, 하이패션협회는 연말을 맞아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와 오사카 섬유의를 박람회 참가하여 한국 하이패션의 우수성을 알린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겸한 창립기념 패션쇼를 개최했다.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용열, 이신우, 배용, 박재원, 문광자, 변지유 등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출품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1985년도에는 예상 유행패션의 보급과 하이패션의 방향제시 및 신소재 소개 등을 위한 다양한 패션쇼가 활발히 개최되어 하이패션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3월에 광주 신양파크에서 열린 박재원을 시작으로, 8월 29일 하얏트호텔에서 손석화, 11월 6일 신라호텔에서 이광희, 11월 9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최복호, 12월 10일에는 부산 조선비치호텔에서 배용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개최했다.

# 1986

## 동경 국제패션박람회에서 부자재 고급화 필요성 절감



- ① 창립리셉션 기념 패션쇼
- ② 창립리셉션 전경
- ③ 창립리셉션장 모습 공석봉회장, 이신우선생과 함께
- ④ 창립리셉션에서 환담하는 허준선생
- ⑤ 창립리셉션장에서 마주친 이재연, 도신우회장
- ⑥ 창립리셉션장에서의 배용선생

1986년 하이패션협회는 고가 하이패션 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계속했다. 1985년에 이어 동경 국제패션박람회와 뉴욕 프렛 박람회, 파리 프레타포르테 등의 해외 유명 패션박람회에 참가했다.

먼저 1986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동경 Sunshine City에서 개최된 동경 국제패션박람회에 KOTRA의 지원을 받아 이열상사(이용열), 배용패션, 도투말패션(박재원), 변지유패션, 구유희패션, 디나리부띠끄(이규례) 등 6개사가 참가했다. 모직, 실크, 혼방제는 일본산에 비해 손색이 없었으나, 화섬, 가죽이 다소 열세이며, 현행 수출 가격보다 20% 정도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벨트, 단추, 안감 등 부자재의 고급화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어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열상사(이용열)와 배용패션이 처음으로 뉴욕 여자기성복 박람회인 뉴욕 프렛(New York Pret)에 참가했다. 당초 주최 측은 한국 디자이너들의 참가를 꺼렸으나 디자인 심사를 통해 결정해 달라는 이용열 하이패션협회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결국 참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소재와 타국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제시로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손석화, 신강식, 문영희 등 10개 회원사가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에 참가해 185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냈으며, 한국관 패션쇼도 진행했다.



## 제1회 서울국제여자기성복 박람회 개최

다품종 소량 고가품 수출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패션산업의 체계적인 유통구조 확립이 절실하다는 이용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창립 후 1년여의 치밀한 조사와 준비 끝에 드디어 198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 전시장 및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서울국제여자기성복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의 국제적인 여성기성복 박람회 개최를 위해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IWS 한국지부, 『멋』 잡지 등이 지원했으며, 하이패션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적 패션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해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다소 촌스러운 명칭인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의 정식 영어 명칭은 'Seoul International Fashion Fair'로, 약칭은 SIFF로 부르기로 하고, 패션쇼장을 포함해 2,248m<sup>2</sup>의 전시장을 임차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과 일본 각 1개사를 포함하여 총 37개사가 참여해 여성용 고급 재킷, 스커트, 코트, 블라우스, 슈트 등을 출품했다. 방문객은 보도 기자단 134명과 미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해외 바이어 104명, 국내 바이어 238명, 섬유패션 관계자 14,854명 등 모두 15,330명이 참관하는 등 호평을 받았고, 약 5백5십만 달러의 상담액과 약 1백8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1986년에도 패션 선진국 시찰단을 파견했다. 먼저 회원사 대표, 디자이너 관련 임직원들의 질적 향상과 최신 하이패션 정보 입수를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25명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동경 국제패션박람회를 참관하고 일본 패션 경향조사와 패션 거리를 견학했다.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했다. 또한 당시에는 섬유 전반에 사용되는 기계, 특히 봉제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KOEX에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섬유기계 전시회에 31명의 회원사가 봉제 자동화 장비 공동 견학을 하기도 했다.

1986  
KOREA FASHION ASSOCIATION

한편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에서는 매일 오후 2시와 5시, 2회에 걸쳐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총 6회의 패션쇼를 진행했다. 12명의 디자이너가 A, B조로 나뉘어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A조는 김해련, 이원실, 이규래, 배용, 이용열, 설영희(신인) 디자이너가, B조는 트로아조, 신강식, 이신우, 이광희, 이원재, 이상봉(신인) 디자이너가 출품해 종전의 작품성 취향의 아트웨어에서 벗어난 실용적인 제품의 상업적인 패션쇼를 개최해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참가업체들의 국제박람회 경험 부족으로 국제기준의 수출가격 산정과 예상유행 패션의 방향제시가 미흡했고, 무엇보다 홍보 미비로 인한 해외업체 및 바이어의 수가 적어 아쉬웠으나, 동경-서울-홍콩으로 이어지는 바잉 라인 형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신인 디자이너 발굴 및 도약의 발판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패션사에 큰 의미를 갖는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이 행사는 1991년 서울국제기성복박람회로, 1996년부터는 서울패션페어로 명칭을 바꾸어 2004년까지 지속되며 한국 하이패션 발전과 국제적인 바잉 시스템 구축에 일조했다.



- ① SIFF 전시장을 둘러보는 이용열 회장
- ② SIFF\_B6 개막식 테이프컷팅
- ③ SIFF기념리셉션 협회로고 업을조각
- ④ 배용선생 부스를 참관중인 이용열 회장, 공석봉 회장, 최경자 이사장

## 고가 하이패션 제품 배정쿼터 확인요령

1986년에는 섬유제품수출조합에서 운용하던 의류섬유 쿼터 배정분의 일정 수량을 확보하여 고가 하이패션 쿼터를 배정하는 권한을 상공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의류섬유 쿼터의 경우, 미국, 캐나다, EU를 대상으로 섬유쿼터가 운영되었는데, 이 중에서 재킷, 바지, 드레스, 신사복, 우븐 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니트 셔츠 등 총 39개의 주요 품목별로 300DOZ씩 확보했으며, 1개업체당 최대 배정량은 품목별로 50DOZ까지 한정했고, 고가 하이패션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등 운영에 공정을 기하였다

고가 하이패션 제품 쿼터배정은 국가적으로 다품종 소량 고품의 수출 촉진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고가 하이패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회원 가입도 이루어져 협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1987

## 해외진출 지원의 다각화 추진

1987년 들어 해외진출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존 파리 프레타포르테, 뉴욕 프렛(New York Pret)에 이어 홍콩 월드 어패럴 엑스포에도 참가하기 시작한다. 홍콩 월드 어패럴 엑스포는 파리, 뉴욕 박람회 비해 합리적인 중가 제품의 대량 주문을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았으며, 섬유소재 및 봉제가 우수하고 디자인, 사이즈도 문제가 없어 현지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았다.

1987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2회 서울국제여자자기성복박람회는 1회 대회 때보다 4개사가 늘어난 총 41개사가 참가(프랑스, 홍콩, 영국 각 1개사 포함)했고, 4일간 25,420명이 참관하는 등 1회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같은 기간에 개최된 패션쇼에는 22명의 국내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미치코 고시노가 특별 참가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 ① SIFF\_87 리셉션 견경
- ② SIFF\_87 리셉션
- ③ SIFF\_87 리셉션에 컬렉션을 연출한 모델센터 도신우희장과 함께
- ④ SIFF\_87 리셉션에서 참가 디자이너와 함께
- ⑤ SIFF\_87기념 국제패션교류리셉션 안내문
- ① 1987년 춘계뉴욕Pret
- ② 1988년 춘계파리여자자기성복박람회 배용, 드맹 공동부스
- ③ 19887년 파리프레타포르테
- ④ 변지유부띠끄 해외전시참가용 브로슈어
- ⑤ 변지유부띠끄 해외전시참가용 스와치



## 목화아가씨 코튼의상 발표회

하이패션협회는 대한방직협회가 개최해 오던 목화아가씨 코튼의상 발표회를 주관해 진행했다. 이 행사는 면의 신비함과 패션성 등을 실제 작품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면의 우수성과 우량 면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증진, 관련업계의 면제품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열렸다.

대한방직협회와 공동으로 1987년 4월 17일 오후 2시와 7시, 2회에 걸쳐 공연 형식으로 목화아가씨 코튼의상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4천 명이 넘는 관객이 문화체육관에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출품 디자이너로는 이용열, 이신우, 이원재, 배용, 이광희, 트로아조, 지춘희 등 모두 7명이 참가했고, 특히 목화아가씨인 에이미 고후 Amy Gough가 이영희 한복을 입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심플한 라인으로 단순미를 강조한 의상과 박스스타일, H라인, 보디컨서스 라인 등으로 곡선미를 살린 의상이 다수 선보였으며, 줄무늬, 꽃무늬, 물방울무늬 등 다양한 패턴과 원색에서부터 흑백의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의 의상이 발표되어 면이 최신 유행과도 밀접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①

- ① 1987 목화아가씨 배용 패션쇼
- ② 1987 목화아가씨 Amy Gough
- ③ 1987 목화아가씨 이신우 패션쇼
- ④ 1987 목화아가씨 이용열 패션쇼
- ⑤ 1987 목화아가씨 지춘희 패션쇼



②



③



④



⑤

## 고가 하이패션 제품 배정쿼터 확인실적 증가

1987년부터는 수요가 많은 대미 섬유쿼터의 고가 하이패션 배정량을 품목별로 300DOZ에서 500DOZ로 늘림으로써 1986년 122건의 확인실적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528건의 확인실적을 올렸고, 고가 하이패션 제품의 수출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고가 하이패션 쿼터배정과 고부가가치 하이패션 제품의 수출증대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12월 8일 섬유수출 100억 불 달성 유공자 시상식에서 하이패션협회 이용열 회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 ① 1987년 고가하이패션쿼터배정증의 업적으로 이용열회장 섬유수출100억불달성 산업포장 수상
- ② 1987년 섬유수출100억불달성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이용열 회장
- ③ 1987년 이용열회장산업포장축하회에서
- ④ 1987년 한국하이패션협회 송년의 밤 및 이용열회장 산업포장 축하회



# 1988

##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1988년부터는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파리에 공동 쇼룸을 개설하고, 뉴욕 현지 무역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일본 지역 순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먼저 파리 현지의 최신 패션정보를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접촉하기 위해, 6월 13일 K.T 인터내셔널사와 3년간의 파리 현지 쇼룸 계약을 체결하고 쇼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 이전에 미리 해당 시즌 상품 샘플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보냄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20m<sup>2</sup> 규모의 파리 쇼룸에는 박재원, 김정아, 정경옥, 배용, 변지유, 신강식, 양은배 등 7명의 디자이너가 입점하였으며, 1차년도 수출 목표액은 77만 달러로 책정했다.

뉴욕에도 현지 무역 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했다. 1988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뉴욕 프렛에는 트로아조, 김선자, 문영희, 이신우, 신강식, 이규례, 배용, 한해자 등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했으며, KOTRA 뉴욕 무역관의 지원 하에 한국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거래를 알선하고 홍보모델 3명을 고용해 판촉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L/C개설, 가격 산정 등 무역실무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벨로나Bellona사를 파트너로 선정해 현지 무역 업무를 일임시키고, 서울에는 우일상사를 선정해 무역 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디자이너 브랜드의 무역실무 취약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해외수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 지안 프랑코 페레 특별 패션쇼

제3회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가 1988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대서양관 5실에서 열렸다.

하이패션 여자기성복 전시와 더불어 이용열, 이광희, 김매자, 변지유 등 국내 디자이너 13명이 참가하는 패션쇼 서울컬렉션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이 행사에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지안 프랑코 페레의 특별 쇼가 14일과 16일 이틀간 열렸으며, '패션의 역사와 오늘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한 패션 세미나가 16일과 17일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를 통해 기대 이상의 홍보와 수주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5월 10일에는 목화아가씨 코튼의상 발표회가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용열 회장을 비롯해 이신우, 오은환, 박운수, 김철웅, 이상봉 등 6명의 디자이너가 참가해 140벌의 작품을 출품했다.

7월 5일부터는 일본 토요일 FPI 초청 하이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얏트 호텔 리젠시볼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일본 의류시장의 현황, 패션정보지 활용방법, '89 유행 동향 등을 소개했다. 섬유 패션 제조업체 경영자, 기획, 개발, 영업, 디자인, 무역실무자 등 모두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①\_88목화아가씨 박운수 패션쇼
- ②\_88목화아가씨 이광희 패션쇼
- ③\_88목화아가씨
- ④\_88목화아가씨 오은환 패션쇼
- ⑤\_88목화아가씨 김철웅 패션쇼

## 한국 섬유제품 순회 전시회 개최

대일 무역역조 시정과 대일 섬유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 섬유패션 제품을 전시하고 판촉하기 위한 순회 전시회를 KOTRA,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기획하고, 패션쇼 부분을 하이패션협회가 맡아 진행하였다. 198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미도메 오사카Midome Osaka에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은 동경 라포레 뮤지엄Laforet Museum에서 각각 패션쇼를 개최했다.

행사경비는 상공부 5천만 원과 섬유 관련단체 및 참가업체들이 7천7백만 원을 분담하여 마련하였고, 출품 디자이너, 업체 및 스태프진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1988

## 중복장애 맹인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

육체적 좌절에 신음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복장애 맹인들에게 교육이나 재활의 길을 열어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다함께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기금을 마련해 보자는 이용열 회장의 제안에 따라 1988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현대백화점 본점 지하 2층 행사장에서 중복장애 맹인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에는 박윤수, 이원재, 문영희, 조은숙, 한계석, 최복호, 박재원, 신강식, 이용열, 이상봉, 설영희, 변지유, 김정아 등 20여 디자이너가 동참하였고, 수입금 790여만 원 중 실경비를 제외한 5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기탁하였으며, 이후 1991년까지 자선바자회를 계속 진행했다.

한편 하이패션협회는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용열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재선임하였다.



1988년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성금을 전달하는 이용열회장

# 1988

30 YEARS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 1988년 당시 이사회 의사록

1988년도 5월 정기회의 개최 회제록

- 일시 : 1988. 5. 27. 09:30 - 10:30
- 장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대강당
- 장차제 :
 

1) 3대 임명	이용열
2) 3대 감사	이원재
3) 3대 감사	이원재
4) 3대 감사	이원재
5) 3대 감사	이원재
6) 3대 감사	이원재
7) 3대 감사	이원재
8) 3대 감사	이원재
9) 3대 감사	이원재
10) 3대 감사	이원재
11) 3대 감사	이원재
12) 3대 감사	이원재
13) 3대 감사	이원재
14) 3대 감사	이원재
15) 3대 감사	이원재
16) 3대 감사	이원재
17) 3대 감사	이원재
18) 3대 감사	이원재
19) 3대 감사	이원재
20) 3대 감사	이원재
21) 3대 감사	이원재
22) 3대 감사	이원재
23) 3대 감사	이원재
24) 3대 감사	이원재
25) 3대 감사	이원재
26) 3대 감사	이원재
27) 3대 감사	이원재
28) 3대 감사	이원재
29) 3대 감사	이원재
30) 3대 감사	이원재
31) 3대 감사	이원재
32) 3대 감사	이원재
33) 3대 감사	이원재
34) 3대 감사	이원재
35) 3대 감사	이원재
36) 3대 감사	이원재
37) 3대 감사	이원재
38) 3대 감사	이원재
39) 3대 감사	이원재
40) 3대 감사	이원재
41) 3대 감사	이원재
42) 3대 감사	이원재
43) 3대 감사	이원재
44) 3대 감사	이원재
45) 3대 감사	이원재
46) 3대 감사	이원재
47) 3대 감사	이원재
48) 3대 감사	이원재
49) 3대 감사	이원재
50) 3대 감사	이원재
- 회제

1. 개최연

1988년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2. 개최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3. 개최목적

본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대 임명 및 감사 임명 등 회정정리를 위하여 개최된 정기총회임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4. 회의내용

본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대 임명 및 감사 임명 등 회정정리를 위하여 개최된 정기총회임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1988년 총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임명장

# 1989



## 소득표준을 인하를 위한 대정부 건의

### 하이패션협회 사무실 무역센터로 이전

1989년 창립 4주년을 맞은 하이패션협회는 조직변경과 사무실 이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KOTRA 회원 가입 등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먼저 1월 20일에는 상공부 섬유생활공업국 출신 김상동 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국장체계에서 상근임원체계로 확대되었고, 상공부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지원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1989년 6월 1일에는 명동 유네스코 빌딩에서 섬유 관련단체, 회원사들이 위치한 삼성동 무역센터 3402호로 협회 사무국을 이전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업무연계를 높이기 위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1월 3일에는 KOTRA 회원으로 가입했다.

창립 때부터 이용열 회장이 역점을 둔 사업인 해외진출 지원도 활발했다. 기존 파리 프레타포르테, 뉴욕 프렛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으며, 1989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만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타이페이 패션위크 Taipei Fashion Week의 초청 전시회인 아시아 디자이너스 코너 Asia Designer's Corner에 젊은 디자이너인 박윤수(박윤수울스 타일)와 이상봉(이상봉부띠끄) 디자이너를 선정해 출품시켰다.

아시아 디자이너스 코너는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아시아의 패션 이미지를 국제화시키고자 기획된 행사였는데, 한국을 대표하여 출품한 박윤수 디자이너와 이상봉 디자이너가 금상을 수상하며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전체 제조업 617개 분야 중 고급양장점과 고급기성복의 소득표준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수차례의 관련단체장 회의와 업계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안을 협의한 결과, 국세청과 관계당국에 소득표준율 인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맞춤복의 고급 양장점은 전체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고급기성복도 6번째로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양장점의 경우, 여성복 한 벌의 가격이 40만 원 이상을 고급양장점으로, 그 이하는 일반양장점으로 분류했고, 기성복의 경우는 여성복 한 벌의 가격이 24만 원 이상을 고급기성복으로, 그 이하는 일반 기성복으로 분류하여 소득표준율에 많은 차이를 두었다.

고급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하여 마진폭이 크다고 하지만 이는 고급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마케팅, 인력 등에 투자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은 일반제품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며, 당시 대부분의 패션업체들이 백화점 중심의 영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총 판매액의 70~90%까지 판매 외형이 노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매장이나 대리점과 달리 전액 외형이 노출되는 판매분에 대해서는 백화점에 상응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줄 것과 패션의류 제품을 일반품, 고가품 그리고 1백만 원 이상의 호화사치품 등 3등급으로 차등 분류해 세율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건전한 생산업종인 패션업종이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보다 소득표준율이 높게 책정되어 향락과 사치조장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이후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계속했다.



# 1990

## 서울컬렉션 상표 등록

한편 1989년에는 서울컬렉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미 1986년에 시작된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개최되어 오던 서울컬렉션의 명칭을 많은 타 단체에서 남발하는 관계로 이를 협회 소유의 고유명사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을 신청하고, 8월 31일 출원 제 2258호와 제 2259호로 도안과 함께 표기된 SEOUL COLLECTION의 출원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종업원의 부당 스카우트 문제가 회원사들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를 책임지는 쇼마스터 Shopmaster를 거금의 선수금을 주어 가며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회원사들 간의 갈등이 조장되다 보니, 정기총회에 종업원의 부당 스카우트 방지대책 수립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 1989

ASSOCIATION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1990년도 서울컬렉션 서비스표등록증

##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의 위기

발기인 33개사로 출발한 하이패션협회는 1990년 창립 5년 만에 회원사가 111개사를 넘어서며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단체로 성장했다. 아울러 1986년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와 서울컬렉션을 개최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유관기관의 재정적 지원 없이 부스판매 대금만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범국가적인 패션 행사가 되지 못하고 하이패션협회만의 행사로 전락하여 해를 거듭해도 발전은커녕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계속 참가하는 몇몇 회원업체도 행사의 중요성이나 회원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함으로써 재정적 손실만 누적되는 문제를 노출했다.

특히 서울국제여자기성복박람회(SIFF)의 개최 목적이 수출상담 및 계약에 있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국내 수출업체가 저가품 대량생산 위주의 OEM방식이었으므로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이나 계약보다는 기존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맺는 실정이었다. 디자이너 브랜드 내수에 의존, 하이패션 수출이라는 정부의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또한 SIFF 행사를 통해 국내 유통구조를 선진국형 유통구조인 주문판매 제도로 개선하려고 했으나, 당시의 유통구조가 백화점, 직영점 및 대리점 등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 내에 바꾸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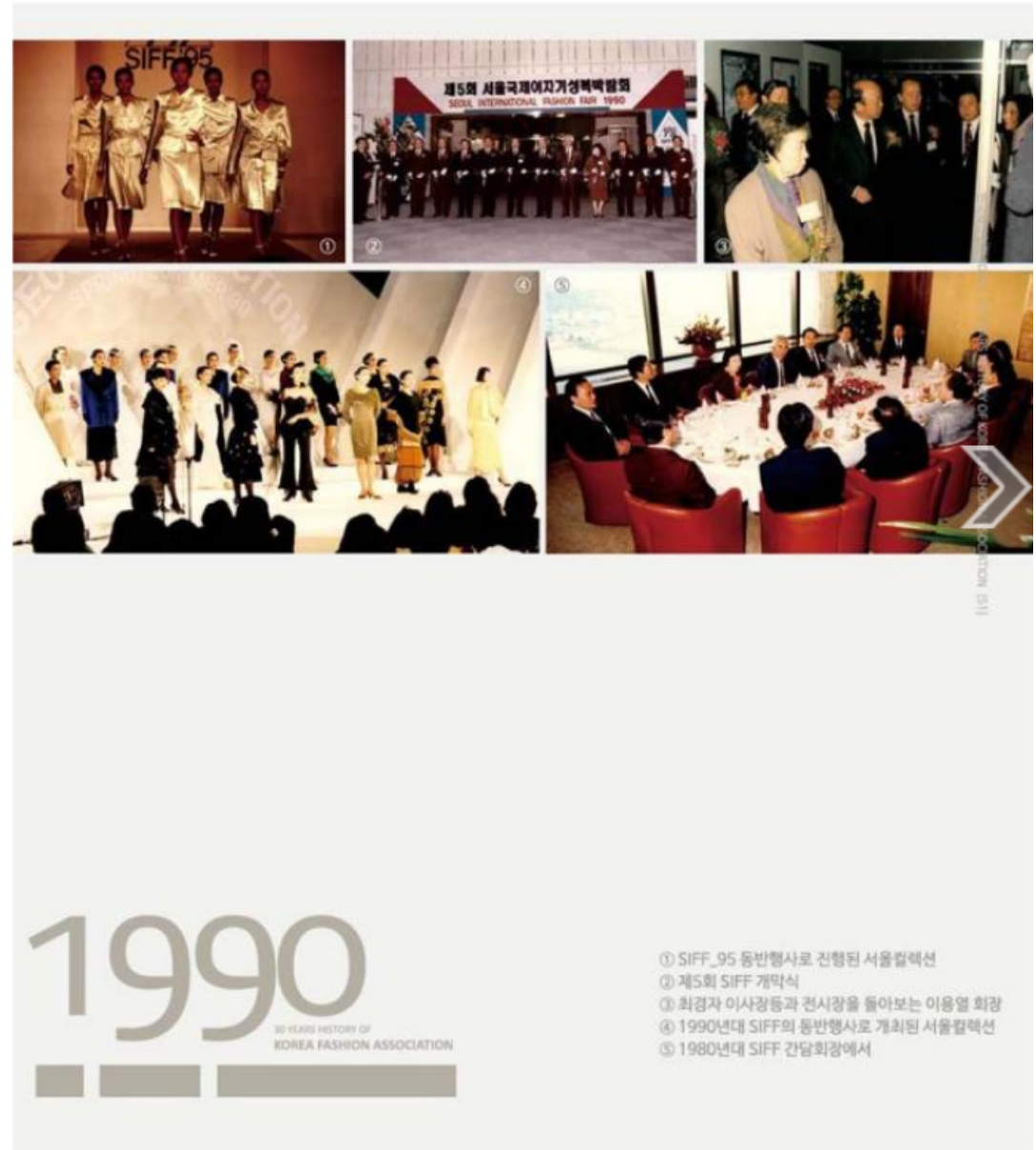
신규업체 또는 중소기업체는 수출절차 진행이나 바이어 상담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물량에 대한 소화능력 등에 문제점이 많아 참가를 미루는 실정이었다. 당시 호화, 사치 등 과소비 억제를 위한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 의류의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SIFF 참가 희망 해외업체까지도 중도에서 참가를 포기하는 실정이었다.

한편 SIFF의 부대행사로 치러지는 서울컬렉션의 경우는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적어 매회 행사가 압박할 시기에 참가 디자이너가 결정되다 보니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가 미흡하여 국내외 패션정보 예측 및 방향제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 유통구조가 바이어 쇼나 주문 판매 제도로 정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상업성 있는 패션 제품을 제시하는 디자이너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만을 제시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아 패션쇼의 성격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미디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열 회장이 중심이 되어 하이패션협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패션업계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수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내 패션박람회 의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박람회 지원을 위해 수차례 상공부를 방문해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즉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시 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바이어의 참가를 유도하려 하였다.

KOTRA 해외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참가 및 바이어 유치를 진행하고, 여성용 고급의 류 및 액세서리 라인의 단조로움을 해결코자 남성복, 유아동복 등 다양한 가격대의 토털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박람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고, 행사장소도 KOEX로 고정하고 시기도 실질적 바잉이 이루어지는 바잉 시즌으로 변경시켰다. 아울러 서울컬렉션의 경우는 참가 디자이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선정하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정 시기를 앞당겼으며, 상품 경향과 소재 선정 지원 등을 위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의 유통구조나 사회적 인식, 경제적 여건 등의 한계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직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이용열 회장은 회고한다.



① SIFF\_95 동년행사로 진행된 서울컬렉션  
 ② 제5회 SIFF 개막식  
 ③ 최경자 이사장등과 전시장을 돌아보는 이용열 회장  
 ④ 1990년대 SIFF의 동년행사로 개최된 서울컬렉션  
 ⑤ 1980년대 SIFF 간담회장에서

## 종합상사 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비

파리 프레타포르테, 뉴욕 프렛 등 많은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으나 L/C 개설, 가격 책정, 거래 조건 등 무역업무의 취약점으로 인해 바이어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가 지정했던 종합상사와 연계하여 해외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업을 위한 상설전시장을 현지에 개설하고 수출창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무역 업무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이 상공부 배송진 계장의 아이디어로 추진되었다.

먼저 배송진 계장은 삼성물산 기획팀의 박종성 팀장과 협의하여 삼성물산의 조직과 사업자금을 활용해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시도가 삼성물산의 고가 섬유 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삼성물산 최고경영진의 방침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한국 디자이너들을 미국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숙녀복 팀과 삼성아메리카(Samsung America Inc.)와 연계해 뉴욕 프렛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담포라, 김연주부띠끄, 김철용모드, 조은숙부띠끄, 매자패션, 신강식부띠끄, 김순일부띠끄 등 7개 업체를 선정해 뉴욕 7번가에 위치한 폭스런 쇼룸(FOXRUN Show Room)에서 프리뷰 쇼(Preview Show)를 개최했다.

사전에 삼성물산 측과 출품품목 결정, 디자인 맵 작성, 상품제작, 카탈로그 제작, 프라이스 카드와 오퍼 시트 등 무역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전시품목도 세일즈맨이 사전 점검토록 하는 등 많은 사전준비를 진행하여 해외 전시 참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프리뷰 쇼에는 백화점, 체인 스토어와 바이 오피스 등 미국 전역에 매장체인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바이어 16명이 내방해 상담했는데, 품질과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가격이 다소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화학섬유보다는 천연섬유 등을 선호했다.

프리뷰 쇼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삼성아메리카는 바이어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으며, 전시품목이 늦게 도착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품목에 맞는 세일즈맨을 고용하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주받은 물량을 삼성아메리카에서 신용을 조사한 후 일괄 L/C를 개설하여 진행하였고, 뉴욕 프렛 전시회 이후에도 계속 바이어와 상담해야 하므로 샘플을 전시할 장소로 그 해 10월 말까지 임시로 삼성아메리카의 사무실을 이용해 주문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종합상사와 현지 지사를 통한 마케팅 활동 덕분에 뉴욕 프렛 전시회의 주최 측인 AETEC의 사무총장이 전시기간 중 한국관을 방문해 1991년부터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만 배정해 온 하이패션 디자이너관에 한국관도 배정할 것임을 밝혀 참가한 디자이너들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한편 1990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에서 개최된 월드 패션 트레이드 페어(World Fashion Trade Fair)에 김연주, 신강식, 정영해, 조은숙 등 모두 8명의 한국 디자이너가 참가했다.



##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 통합, 한국패션협회로 새 출발

1990년 4월 4일에는 회원사 확대를 통한 기능활성화를 기하고자 협회 명칭을 한국하이패션 협회에서 한국패션협회(Korea Fashion Association)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패션의류를 제조하는 전 업체가 협회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패션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패션진흥협회, 한국패션협회 등 협회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단순하지만 한국의 패션산업을 대표할 수 있다는 다수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한국패션협회로 결정되었다.

이어 1990년 10월 19일에는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회장 최형로)를 통합해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패션단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내셔널 브랜드 CEO들로 구성된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와의 통합을 선포하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패션인 다함께'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패션인들의 화합을 다졌다.

한국패션협회로 변경된 기관

구분	명칭	명칭 (변경)
제 1조 (명칭)	본회는 원호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제 1조 (명칭) 본회는 원호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패션의류의 제조, 유통,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패션의류의 제조, 유통,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3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4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5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5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6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6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7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7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8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8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9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9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0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0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1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1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2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2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3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3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4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4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5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5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6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6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7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7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8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8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9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9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20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20조 (회비) 본회 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한국하이패션협회에서 한국패션협회로 변경된 법인인감, 직인, 계인

구분	명칭	명칭 (변경)
인	한국하이패션협회	한국패션협회
직	한국하이패션협회	한국패션협회
계	한국하이패션협회	한국패션협회



① 1990년 통합기념 패션인 다함께 행사장에서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 최형로 회장과 함께  
 ② 1990년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와 통합을 선언하는 기자간담회  
 ③ 패션인 다함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형로 회장  
 ④ 통합이후 확대된 한국패션협회 당시 회원사명단 일부

당시의 패션협회 통합에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패션협회의 관련 부처인 상공부에 재직 중이던 배승진 계장은 패션협회를 책임질 새로운 신임 대표는 미가입 디자이너를 끌어들이기 위한 화합형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한국패션산업경영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최형로 톰보이 대표에게 신임 회장직을 제안했지만, 부회장단으로 옆에서 돕고 싶다고 간곡히 고사하는 바람에 새로운 회장 적임자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으니, 디자이너 그룹에 소속된 디자이너들의 패션협회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국패션협회로 변경된 기관

한국하이패션협회에서 한국패션협회로 변경된 법인인감, 직인, 계인

# 1990

- ① 1990년 개최된 제1회 패션인의밤
- ② 1993년 패션인의 밤 결과보고
- ③ 패션인의 밤에 참석한 최경자 여사와 진태욱 디자이너
- ④ 1991년 공석봉 회장 취임이후 개최된 패션인의밤
- ⑤ 1991년 패션인의밤에서 열창하는 아끼아마 고문

이를 위해 배승진 계장은 신입 회장을 찾는 작업과 함께 패션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디자이너들을 만나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시 패션계에는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의, 세계패션그룹 한국지부, 중앙 디자이너 그룹 등 디자이너들이 패션그룹을 만들어 활동 중이었다. 그는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회장 예정자인 안운정 디자이너를 비롯해 그룹별로 디자이너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디자이너 그룹 활동은 계속하되 정부직제상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상공부를 통해 해외진출이나 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패션협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배승진 계장은 디자이너 그룹 인사들로 부회장단을 꾸렸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을 모색하던 중 국제양모사무국(IWS) 한국지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패션 정보를 제공해 신뢰가 높았던 공석봉 금강모방 사장을 만나, 통합된 패션협회의 화합을 위한 적임자라며 신입 회장직을 제안했다.

디자이너들의 협회 참여에는 「멋」지의 지재원 기자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국내 유일의 패션잡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지재원 기자는 배승진 계장과 함께 디자이너들의 협회 가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지재원 기자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신망이 높은 상황에서 「멋」지의 송년모임에 디자이너를 초청해 패션협회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덕분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패션협회에 가입하게 되어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1990년부터는 패션인들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송년행사 성격의 '패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는 1993년까지 지속되었다. 패션인의 밤은 1부에는 디자이너 대담과 내년도 패션업계 전망이나 머천다이징 전략 같은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이어 2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졌는데 패션협회 회원사와 함께 정부인사, 언론 등 패션 관계자들 약 2백여 명이 참가하여 노래자랑, 장기자랑, 시 낭송 등 평소 알지 못했던 패션인들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행사였다. 특히 배용 디자이너의 독창과 드맹의 문광자, 이무석 교수 부부의 시낭송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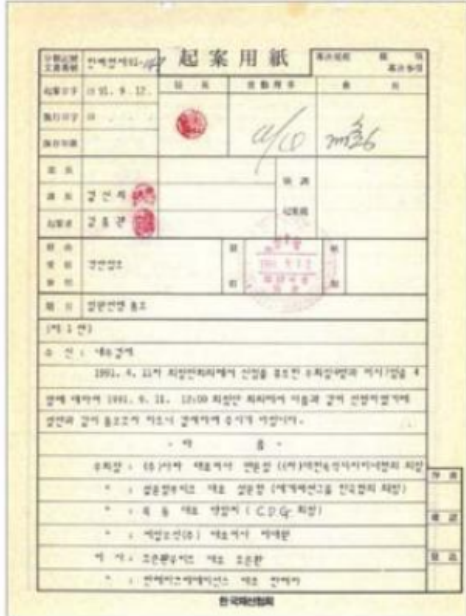
# 1991

## 공석봉 금강모방 사장, 3대 회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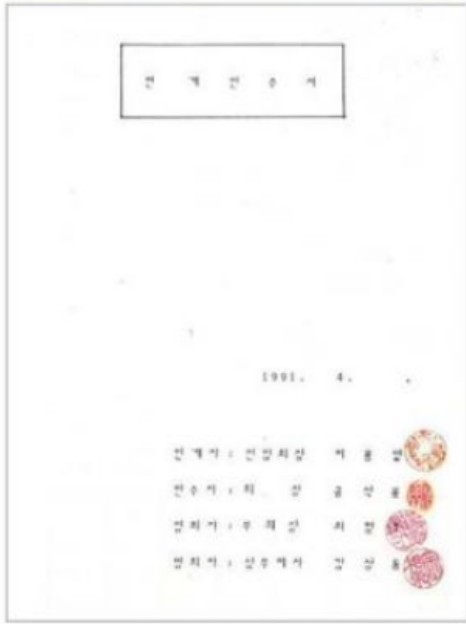
패션협회는 통합 이후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패션 경영인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2기 시대를 시작한다. 1991년 4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패션협회는 당시 국제양모사무국(IWS) 한국 지부 대표를 역임하고 금강모방을 경영하고 있던 공석봉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4월 10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공석봉 회장은 서울대학교 섬유공학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원 공업역학과를 수료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역임했다. 공석봉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하나의 정원사가 되어 패션이라는 동산을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나무 모양이 다르듯 여러분들의 개성 또한 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산의 주인으로서 각기 특징 있는 나무가 되어 이 동산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공원을 가꾸고 손질하여 터를 닦아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디자이너가 아닌 경영자로서 개성 강한 패션단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한 대목이었다.

1985년 창립 당시 33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패션협회는 이용열 회장이 재임 중인 1991년 초 145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패션단체로 성장했다. 아울러 공석봉 회장 취임 이후 그간 패션협회와 다소 거리를 두었던 진태욱 등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SFAA) 소속 디자이너들이 패션협회에 가입해 설운형부띠끄와 옥동(박항지)은 부회장으로, 오은환부띠끄와 한혜자크리에이션은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 공석봉회장 취임후 임원신임 통보 관련서류



상공부에 보고된 공석봉회장 신임 통보 공문



이용열회장과 공석봉회장 인수인계서





## 패션정보 세미나 개최

한편 협회보 『패션코리아』 발행과 함께 패션협회는 패션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매일 개최하여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주로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이나 아미가 호텔에서 저녁 7시에 개최하였는데, 패션업계 전망, 유통시장 개방 대응전략 등의 정책적인 부분부터 VMD의 실제, 어패럴업계의 패션 마케팅, 패션 트렌드, 전후세대의 패션의식, 일본 전문점의 현황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세미나의 강사로는 이화여대 조규화 교수, 상공부 박양우 과장과 배승진 계장, 제일모직 김강화 부장, 경문수 과장, 신세계백화점 정용화 상무, 프로모스틸 김영순 대표 등이 활동했다.

또한 당시 허준, 김청 등의 평론가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는데, 패션 트렌드는 물론 패션협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해서도 평론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66% SACK dress.

1950년대 폴케어코트와 일렉시아가를의 디자인이 풍부하다. 스키에는 대담한 크로스, 왼쪽이 최강자의 목

재드가 들어있는 수트, 스커트의 길게성으로 반쪽을 쓴 모방이 눈에 띈다. 옷을 입은 이는 폴지의 뛰어난 바를지아인의 의뢰대로 올랐던 후 국제복합학원에서 일드레잡과 폴케 디자인을 공부한 자들.

1950년대에 유행한 아름다운 폴케 스키트를 입은 여인. 요즘 여성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풍도이다.

값보다 더 비싼 공성을 받았는데도 손님이 끊어질 않았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이 무렵 '여인 (1955년 11월 호)이 처음으로 패션 페이지를 확보로 신선했다.' 최경자의 작품을 실었는데 이 당시는 작업모양이 없어서 최은희, 안나영(작고한 영화배우)일 김미경일, 윤인자일 등 대부분이 배우들을 내세웠다. 이 기획은 점차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잡지의 모드 화보가 탄생되었고 다른 잡지들도 이에 뒤질세라 모드를 실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용되었던 오버코트는 거의가 순모 나뉘지 않고, 국산은 없고 영국제 프랑스제 등 최선이 판을 쳐서 옷감은 좋은 것이 많았다. 이때부터 패션 스타일은 정립되어갔다.

### 헐렌 스타일 머리모양, 시브리나 펜츠기 유행

정부의 사법-행정-입법부가 모두 원도하게 되면서 서울에 본래 살던 사람 1~4후파에 월남한 사람. 또 이제까지는 지방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기도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여 불비해 되었다.

다구나 모든 재물이 무(無)로 돌아갔으므로 재가야한다는 사람들의 의욕 때문에 폐허의 거리는 활기에 찼고 복구 재건은 하루가 다르게 번오하여 갔다.



명동의 거리도 서울의 중심가로 탈바꿈되어 값싸고 유행의 본고장다운 화려한 거리가 되었다. 지금도 명동에는 다방이나 카페가 많지만 파란사철부터 다방이 많이 생겨서 사람 많지만 배운 최디니 원도 후에 도 명동에는 여기 저기 다방이 생기고 문화인들이 명동의 다방에 모여들었다. 원도 후에는 전화가 없었으므로 단골다방이 연락처였고 거기 나가면 모두 만나게 되어 있어 화가나 문인들에게는 이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다방으로는 '동광상점', '모나리자', '셀프렌시크' 등이 유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양말정도 팔림 늘어났고 그 사이 시야에 2~3층 정도의 작은 구두수선소가 인기를 끌었는데 구두를 구두나 핸드백을 일씩 하거나 사이즈를 고쳐주는 병원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동대문-남대문시장에는 구제 품에서 패이던 단추, 레이스 등 부속품만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그때부터 있었고, 구제품

을 개조해서 파는 점포들도 있어 영화배우나 몇몇자들이 즐겨 애용했다. 우레가 울크레도 구제품을 개조해주는 수선점이 생김을 이루었는데 '우라카'라고 해서 옷을 뒤집어 안팎을 바꾸어 개조해 입는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다.

휴전협정으로 인한 다소 안정된 비상사태였기에 유행에 눈을 돌릴 사이가 없었지만 원조물자에 의한 미국 스타일과 자이(GI)와 손잡은 여성들이 도입한 패션, 그리고 '분홍선'과 같은 무용영화는 심심치 않게 유행을 샀이었다.

아코디언 폴케스 스키트(Accordion Plots Skirt)와 이케 레드폴, 샹크 세워린(Shank Sewerin)에 놀람 슬리브(Dyman Sleeve)나 프렌치 슬리브(French Sleeve)가 나왔다.

전년도의 너무 넓은 것에 대한 반발이던데, 차아복이 점점 좋아져 타이프스키트나 좁은 슬랙스가 유행하였다. '모리' 류일의 국내영화상영과 함께

헐렌스타일의 머리 모양과 '사보라나' 상인으로 일명 밤보라지라고 부르는 사보라나 펜츠와 함께 재즈가 유행하였다. 사교증이 널리 보급되면서 정박시대의 신문연재소설 '자유부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시기다.

백화점은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과 신선백화점(종로 내거리 현재 제일은행 본점 자리), 그리고 화신백화점이 개점하였고 잇달아 미도파가 개점하였는데, 이때는 격일이 아니고 일대하였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국성을 부려 고객들을 끌어들여 만들기도 했다.

인기있던 미용원은 신선백화점에 있던 신선미용실, 명동의 신창미용실과 로라들이 있었고, 입형선어가 운영하던 미용학원이 설립을 이루었다.

패션잡지로는 일본에서 발행된 '크레소베어링과 쇼엔(靴履)'이 창간점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이 시기에는 일본을 거쳐 패션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밖에 피렌스 통해 들어온 보그 패션잡지는 미국의 시언스 변화전의 카모모지가 정보 역할을 하였던 시기다.



글쓴이 허준

조선총독부 1937년 8월 26일 칙령 제121호로 국채보상특별법 제정 공포시 3년간 일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고, 국채보상 특별법 제정 당시 공부물 된다. 20년 활동에서 '명망'이라는 디에이(이름)를 관망, 그후 기생적 '원불부'를 운영하면서 TBC 4대의 상을 담당하는 등 2000년 1월 15일(사)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재민회로 김사로 있으면서 국제재단디자인 연구원에서 후진 양성 중. '책'디자인의 '프리', '프리' 2001' 등의 저서 있다.



## 각종 정책자금 배정 추진

패션협회는 공석봉 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정부 정책자금 중 패션업체에 대한 추천권을 위임받았다.

먼저 섬유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패션디자인의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패션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지원하는 20억 원 규모의 섬유패션 디자인 진흥자금의 추천을 시작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는 7%,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컬렉션 및 전시회 참가비나 해외매장 개설,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구입비, 기자재, 상품기획 및 소재개발비 등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패션업체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가 하이패션 쿼터 배정도 늘어났다. 미국, 캐나다, EU, 총 39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300DOZ씩 배정된 쿼터량이 대미 쿼터의 경우 품목별 700DOZ까지 늘어나 하이패션 제품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고가 하이패션 쿼터 배정 외에도 패션협회는 상공부로부터 수입 모직물 실수요분 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시작했다.



# 1992

## 사무실 이전

1992년 11월 11일 섬유의 날에 맞춰 진행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섬유센터 준공식을 기하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섬유센터 13층으로 입주하였다.

## 패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 개최

취임 2년째를 맞은 공석봉 회장은 만성적인 협회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자회 행사를 추진했다. 회원사를 중심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여 패션업계의 발전적인 결속을 다지는 한편, 부족한 패션협회 경비를 충당하면서 아울러 패션 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현대백화점 협찬으로 1992년에 시작하여 연례행사로 개최되었다.

제1회 바자회가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소피아 플라자에서 9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당시로서는 거액인 1억4백만 원의 수입을 올려 패션협회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패션 진흥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는 2003년까지 지속되었다.

1992년 들어 회원사들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회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회원사 홍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회원수첩을 700부 제작하여 회원사와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 KBS에 패션 관련 보도 요청, 9시 뉴스에 첫 방송

패션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공석봉 회장은 방송과 신문 등 주요 언론의 패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가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1년에도 “패션이란 사치스러운 강남 아줌마들의 경망스러운 망동의 소산”이라고 노골적으로 빈정대던 잔재가 남아 있던 시기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87년 6.29선언으로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TV는 물론 일간지까지도 패션관련 기사를 다루었다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공석봉 회장은 IWS 한국지부 대표를 맡고 있던 제5공화국 시절에도 경제는 물론 문화사업이란 측면에서도 패션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당시 유일한 패션지인 동아일보 『멋』 지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투고를 하였다.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공석봉 회장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예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국산 견직물을 만들어 수출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몇 년 만에 국산 실크 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1야드 당 5달러에 팔려고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이 실크 원단으로 넥타이를 만들어 팔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원단 1야드로 넥타이 5매가 나오는데 넥타이 한 장에 10달러를 받으니 10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이와 같이 패션의 실효성을 강조하여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된다.

또한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컬렉션을 통합해 획기적인 서울컬렉션을 진행했지만 어느 매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다. 패션의 3대 메커니즘인 만드는 기능, 전달하는 기능, 소비하는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전달하는 기능 중의 하나인 매체가 침묵하다 보니 별로 성과가 없었다.

결국 1992년 가을, 공석봉 회장이 찾아간 곳은 바로 공영방송인 KBS 사장실이었다. 당시 KBS 사장은 서울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소설가 출신의 서기원 사장으로, 그는 공 회장의 설명을 금방 이해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며칠 후에 KBS PD가 패션협회 사무실을 찾아와 방송사 내부에서 논란이 야기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간부회의 결과, 패션관련 내용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보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9시 뉴스에 역사상 처음으로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감격에 겨워 공석봉 회장은 다음날 서기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KBS의 방송 이후 SBS와 MBC에도 패션관련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간지에서도 패션기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방송이나 잡지에 패션기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는 패션관련 보도가 큰 사회적 문제였다.

# 1993

## 엑스포 패션 페스티벌 참여

1993년에는 대전 EXPO '93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독창적인 창작력과 다양성을 선보여 한국 패션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EXPO 패션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전 EXPO 대공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디자이너 패션쇼, 내셔널 브랜드 패션쇼 등으로 구성하여 패션협회가 진행하였다.

1993년부터는 회원 상호간 협동성 고취와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다. 회장 밑에 기획운영분과, 패션디자인분과, 홍보분과, 행사분과, 국제교류분과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회원사를 희망분과에 배치해 효율성을 꾀했다.

## 현대여성의 소비실태 보고회 개최

1993년 7월 2일 섬유센터에서 이화여대 조규화 교수에게 의뢰한 서울 거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현대여성의 소비실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여성(18세~47세)은 티셔츠, 스커트, 바지 순으로 53점의 의복을 갖고 있고, 월 7만 원의 의복구입비를 지출하는데, 57%가 스타일을 위주로 구입한다고 하였다. 또 서울 여성들은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의 신체부위 중 나이가 젊을수록 다리와 키를, 나이가 많을수록 허리와 배 부위의 약점을 가려 주는 디자인을 선호하며, 44%가 매장 진열을 보고 충동 구매한다고 답했다.



1993년 조규화 교수에게 의뢰하여 발간한 현대여성의 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3년 현대여성의 소비실태조사보고서 머릿말 내용

## 한국어패럴봉제협회 해산에 따른 반사이익 누리

1993년 5월 한국어패럴봉제협회가 누적적자로 해체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협회 회원사가 한 달 사이 30여 개사가 늘어나는 즐거움도 있었다. 대우, 반도패션, 동일레나운, 한주통산 등 대형업체들로 질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원사 증가는 한국어패럴봉제협회가 전담해 오던 의류제조용 직물의 원산지 표지 면제 실수요자 확인 업무를 패션협회가 위임받은 데다 수입모직물 품질표시 면제 실수요자 확인업무도 패션협회만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1994

## 유기재 상근 부회장 부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1994년 4월 12일 제4대 회장으로 공석봉 회장이 재취임하고, 상공부 과장 출신인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의 유기재 상무이사가 패션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기재 부회장은 부임하자마자 상공부 시절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패션산업 종합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상공부로부터 이끌어내 패션협회의 사업과 기능을 대폭 확대시켰다.

먼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던 대한민국 패션대전을 이관해 주관 개최하면서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켰고, KOFA 컨벤션 개최, 스트리트 패션 자료집 발간, 섬유패션디자인진흥자금 외에 패션디자인 합리화사업 자금,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 개척기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배정 권한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원 4명을 공채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패션업계의 대표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구축했다.

1993  
50 YEAR HISTORY OF  
KOREAN  
FASHION  
ASSOCIATION



1994

KOREA FASHION ASSOCIATION

정규직원 공채후  
새롭게 조직된 사무국 기구표

## 제12회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 개최

패션협회는 1983년부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해 오던 국내 최고 최대의 패션디자인 콘테스트인 대한민국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 이관 받아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으로 행사명을 변경하고, 1994년 11월 9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약 1,500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먼저 응모 공고를 낸 후 7월 24일 한양여전에서 패턴메이킹 및 스타일화 심사를 거쳐 최종 26명을 선정했다. 이어 11월 8일 실물 작품 및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9일 최종 무대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에스모드서울 출신 길연수가 최고상인 상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백만 원, 사가모피 15일 연수의 부상으로 받았는데 1995년부터는 최고상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고, 상금도 1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① 제21회 대한민국패션대전 시상식  
② 제23회 대한민국패션대전 시상식  
③ 제32회 대한민국패션대전 수상자와 함께한 원대면 회장

제22회 대한민국패션대전 대상수상자 소감발표



제29회 대한민국패션대전에서 시상중인 원대연 회장

대한민국 패션대전은 패션업계의 국전으로 신인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내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제품 제작에 중점을 두는 교과과정이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

초기 대한민국 패션대전은 부상으로 해외연수의 특전을 주었기 때문에 수상자들이 주로 대학 등의 학계에 포진했었으나, 시상내용을 명예 부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에는 많은 수의 수상자들이 브랜드 디자인실에 폭넓게 포진하는 등 패션디자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십 년간 배출된 패션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대연 회장의 의지에 따라 1995년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인 '그룹 프리미에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대 진성모(국민대 교수), 2대 이연희(한양대 교수), 3대 박선희(이대 교수)가 회장을 맡아 150여 명의 회원을 이끌어 가고 있다. 또 협회의 지원을 받아 각종 컬렉션과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국내 패션업계의 중추적 인재들로 성장하고 있다.

### 코파 컨벤션 개최와 스트리트 패션 자료집 발행



1994 KOFA CONVENTION 브로슈어

한편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패션브랜드와 유통업체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파 컨벤션(KOFA CONVENTION)을 개최했다. 1994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 행사에는 사라(안윤정), 안지히모드, 이느와(이윤혜), 모다쵸바니(정영혜) 등 7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섬유센터 2, 3층 전시장에서 열렸다. 전시와 함께 개별 쇼와 합동 쇼를 6회 개최했는데, 3백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패션브랜드의 추동 상품을 사입하여 재고부담을 지는 구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 자료집도 발행했다. 자료집에는 소비자의 외출복 착용 경향 실태 파악 및 분석, 의복 착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자료화, 패션업계의 상품기획 정보를 담았다. 이를 위해 1994년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40일간 패션 중심지별로 28회 촬영을 하고 연령별, 아이템별, 이미지별로 분석했는데, 최근 유행의 전파속도가 파리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의상 형태나 색상 등에 있어서는 서울이 더 화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 1995

## 각종 정책자금 배정 지원

1994년부터는 섬유패션디자인 진흥자금 배정 추천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패션업체를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공업발전기금 중 패션디자인 분야 합리화 사업자금을 배정 추천했다. 또한 대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배정도 추천했다.

그 결과 1994년의 경우, 7개 업체에 13억8천만 원의 합리화자금을 배정했고, 섬유패션디자인 진흥자금은 7개 업체에 5억2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기금은 6개 업체에 4억8천만 원을 각각 배정해 지원했다.

이후에도 정책자금의 대출규모를 계속 확대해 1995년에는 공업발전기금 중 고부가가치 사업자금 36억2천만 원, 섬유패션디자인 진흥기금 2억1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기금 16억9천만 원 등 총 55억2천만 원의 자금을 31개사에 배정했다. 이어 1996년에는 31개사에 55억1천만 원, 1997년에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포함 46개사 62억8천만 원, 1998년에는 82개사 114억2천만 원을 각각 배정했다.

## 한국패션협회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1995년 4월 12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패션협회는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와 관련단체, 정부기관, 학계,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석봉 회장은 협회 창립과 발전에 도움을 준 통상산업부 김수동 전 섬유생활공업국장, 박양우 전 섬유제품과장, 홍순직 전 섬유제품과장, 배승진 전 섬유제품과 사무관과 동아일보 지재원 기자, 일간스포츠 박희자 기자, 문화일보 이형숙 기자, 동아일보 강상헌 기자, 한국섬유 김미영 기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① 한국패션협회 창립 10주년기념식에 참석한 트로아조, 이영희, 안윤경, 리미원, 이상봉, 박재원 디자이너와 함께  
 ② 한국패션협회 창립 10주년기념식에서 건임 이용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공석봉 회장  
 ③ 한국패션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씀중인 공석봉 회장

- ① 1997년 한국패션총람
- ② 1998년 한국패션총람
- ③ 2000년 한국패션총람
- ④ 2002년 한국패션총람



## 한국패션총람 발행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패션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패션총람을 1995년 11월 10일에 발행했다.

한국패션총람은 1부 한국패션협회 관련 자료, 2부 회원사 소개, 3부 섬유패션 관련정보를 담았으며, 1,000부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패션 관련단체, 기관에 무료 배포하고 잔여분은 판매했다.

한편 1995년 발행 이후 1997, 1998, 2000, 2002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한국패션총람을 발행했으나, 이후 패션협회 홍보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되었다.

## 삼풍백화점 피해업체 보상

1995년부터는 백화점 유통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패션업계와 백화점 업계와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패션협회-백화점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패션업계의 당면과제인 백화점 입점 및 영업상황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양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다.

17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MD개편, 판매 수수료율, 판매대금 결제조건, 세일기간 및 방식, 판매사원 관리, 광고판촉비, 제품분실, 입퇴점 등에 관한 50개 문항을 2회에 걸쳐 조사하여 정부에 시정을 건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패션협회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백화점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입은 패션업체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붕괴사고 이후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채권단을 구성하였다. 이어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백화점협회와 삼풍 피해 신고센터를 섬유센터 2층에 임시로 설치하고 피해액을 신고받았다.

최종 집계결과 패션업체는 80여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09건, 314억 원의 피해액이 집계되었다. 이에 통상산업부 피해업체 업종별 간담회에 참석해 패션의류업종 피해액을 발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보상활동 결과 패션협회가 가구, 가전, 식품, 귀금속, 식당 등 삼풍백화점 입점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세 차례의 패션업계 대책회의와 네 차례에 걸친 업종별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보상 활동을 지속했다.



# 1996

## 워크숍 형태의 패션인 재교육 실시

보상활동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삼풍백화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 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피해업체의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에 선보상 후구상권청구라는 보상책을 건의했으며, 보상책이 미흡할 경우 업체 공동으로 대정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최후수단으로 삼풍백화점 회장의 개인재산 가압류 조치 등도 검토했다. 이는 백화점 영업이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중소 패션업체들이 별도의 상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일을 앞두고 물량을 많이 투입하여 피해액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협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1996년 3월 27일, 314억 원 전액을 보상받아 피해업체에 전달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피해가 발생한 지 1년도 채 안 돼 이러한 대규모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패션협회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한 클라라 정환상 회장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백화점 붕괴로 실의에 빠진 중소 상인들과 패션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패션협회의 활약은 섬유패션의 대표단체로서 인정받을 만한 쾌거 중에 쾌거였다.

1996년 들어 패션협회는 패션인 재교육을 실시했다. 코디오의 정기자 대표, SUS의 조익래 소장과 현장 실습형 중견 패션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강사, 일정, 장소, 진행방법을 협의하여 기획하고 워크숍 형태의 교육대상자 주도의 교육을 실시기로 결정한다.

F.I 기초반, F.D 중급반, 특강반 등으로 커리큘럼을 나누어 20명 내외의 인원을 3박4일간 32시간의 교육으로 진행하였는데, 교육수강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기도 이천 주리아 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

교재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는 일인당 45만 원이었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일인당 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강생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1996년에는 총 8회 201명을, 97년에는 총 7회 18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1998년에는 총 6회 246명을 배출했으나, 1999년 이후 중소기업청의 지원 중단으로 아쉽게 사업을 접었다.

# 1995

#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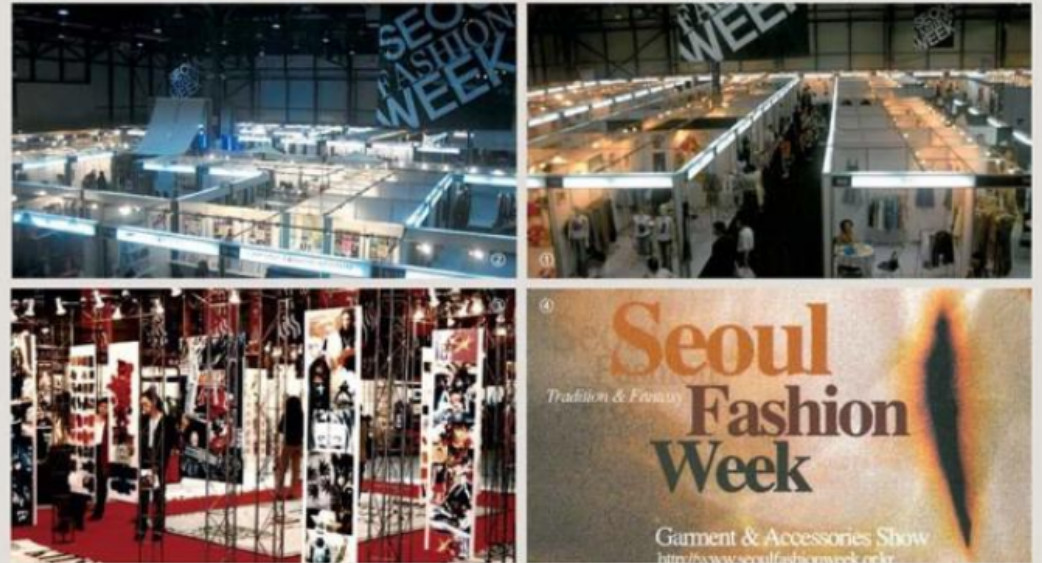
## 코리아 패션드림 일본전 개최

국내 유수의 패션제품을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함으로써 대일 수출을 확대하고 패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97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일본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에서 코리아 패션드림 일본전을 개최했다.

여성복, 남성복, 액세서리 등 19개사 25개 부스가 참가하였으며, 배용, 박윤수, 문광자 등 3명의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통상산업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KOTRA와 함께 일본 통상성, 큐슈백화점협회, 기타큐슈 상공회의소가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일본 현지에서 활동중인 오영록 사장의 진행으로 174개사 558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 제1회 서울패션위크 개최

199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과 제2체육관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패션행사들을 통합한 제1회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21세기 전략산업 중 하나인 패션산업을 육성하려는 범정부적 의지를 가시화한 것이며, 향후 세계 5대 패션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종 패션 행사들을 통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행사의 준비를 위해 공석봉 회장과 유기재 부회장은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을 연일 방문하여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끌어냈다.



- ① 서울패션위크 전시장 전경 1
- ② 서울패션위크 전시장 전경 2
- ③ 서울패션위크 전시장내 설치된 트렌드 포럼관
- ④ 서울패션위크 현수막 시안

서울패션위크는 '뉴 밀레니엄 투 더 이스트 New Millenium to the East'라는 주제로 전시회인 서울패션페어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로 이루어진 서울컬렉션, 그리고 국내 최대 패션 콘테스트인 대한민국 패션대전, 서울패션인상 시상식을 동일 기간에 동일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이 행사는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패션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후원을 받았고, MBC와 동아TV가 후원하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협찬을 했다.

먼저 서울패션페어는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3,500m<sup>2</sup>의 전시장에 8개국 101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신제품을 전시했으며, 일반관 이외에 서울컬렉션 특별관, 해외 그룹관, 프로모션관, 패션 서비스관으로 전시장을 구성하여 총 17,878명이 참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트렌드 포럼관과 시물레이션샵, 서완석입체패턴연구소 서완석 소장이 기획한 비오네의 패턴예술 전시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서울패션페어에 참석한 한인의류협회 간사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공식용 회장



제11회 서울패션페어 행사소개

서울컬렉션은 6일간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패션업계를 대표하는 43명의 중견 및 신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총 24회의 패션쇼를 진행했다. 배용, 이규례, 최복호, 신강식, 문광자, 유춘순, 이영희 등의 디자이너와 KFDA그룹의 안윤정, 김연주, 이영선, 문영자, 이철우, 황재복, 이윤혜, 김해련, NWS그룹의 박춘무, 양성숙, 한승수, 우영미, 박운정, 이경원, 유정덕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신인디자이너 그룹인 G&G그룹, IFUN그룹 등이 참여했고, 디자이너 줄리 벳 JULY BET이 초청되어 특별 패션쇼를 선보였다. 6일간 총 23,600여 명이 참관하였으며, 프랑스의 주 날 드 텍스틸 Journal de Textile, 이탈리아의 패션 Fashion, 독일의 Bekleidung, 영국의 드래퍼스 레코드 Draper's Record, 홍콩의 인사이드 패션 Inside Fashion, 일본 섬유신문 등의 해외 프레스들이 내한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대한민국 패션대전이 개최되어 서울패션워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는 협찬사 갈라쇼와 함께 디자이너 강진영의 컬렉션이 개최되었는데, 공식 입장자만 2천 명이 넘었으며 장내에 입장하지 못한 5백여 명이 행사장 밖에서 항의 소동을 벌이는 등 역대 최대 인원이 참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제1회 서울패션워크는 각종 패션행사를 통합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패션이벤트였으며, 패션과 관련된 모든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패션행사 최초로 공중파인 MBC를 통해 스포츠 광고 200회를 내보내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으나, 조직적인 홍보 부족과 해외 바이어의 부재라는 국내 패션행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숙제를 남겼다. 당시 대한민국 패션대전 행사는 모델센터의 도신우 회장이 도맡아 연출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패션대전이 패션의 국전으로서 국내 최대의 단일 패션행사였던 만큼 모델센터의 진행 안정감과 도신우 회장의 경륜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초 서울패션워크의 시작을 알리는 패션축제로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패션워크 시상식은 서울시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1997년 12월 17일 저녁 6시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변무대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컬렉션 참가 디자이너들의 특별패션쇼와 음악이 접목된 공연을 MBC 한마음 음악회 특별프로그램으로 녹화 방영하였다.

- ① 제2회 서울패션워크 개막식에 참석한 이희호 여사
- ② 제2회 서울패션워크 기간중 개최된 제16회 대한민국패션대전을 관람하는 이희호 여사
- ③ 제16회 대한민국패션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이희호 여사



서울패션인상은 당해년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디자이너, 신인디자이너, 경영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1997년 제1회 서울패션인상은 패션디자이너 부문에 이영희 한국의상 대표, 패션경영인 부문에는 LG패션 신흥순 대표이사, 신인디자이너 부문에는 강진영 오브제 대표가 수상했다.

1998년부터는 브랜드상이 추가되어 배용 배용패션 대표, 삼성물산·제일모직 원대연 대표이사, 테무 박춘무 실장, 제일모직 빈풀이 수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직자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치에 따라 부상(500만 원 상당 순금트로피) 제공이 금지됨으로써 2006년 이후 행사가 중단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 ① 제9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수상자
- ② 제8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리셉션 축하케익 컷팅
- ③ 제8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리셉션장에 함께한 3분의 회장님
- ④ 제7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축하 패션쇼
- ⑤ 제6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에 참석한 디자이너들
- ⑥ 제8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수상자
- ⑦ 제7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리셉션장
- ⑧ 제7회 서울패션인상시상식 수상자

1997  
30 YEAR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30 YEAR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 1998

## 고유 브랜드 육성지도 사업

IMF 사태 이후 패션협회는 해외진출, 취업, 상품기획 강화, 벤처기업 지원 등 패션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상품기획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고유 브랜드를 육성키로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기획 정보제공과 시장조사, 판촉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C&T Union을 지도기관으로 선정하고 정부지원금 1억1천만 원을 활용해 15개 패션 브랜드의 상품기획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브랜드력 강화와 상품기획 효율성을 증대시켜 브랜드 포지셔닝 쇄신과 시장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제1회 패션관련 대학 취업박람회 개최

패션협회는 한국 패션의 미래를 담보할 인재 육성에 대한 사업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199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회 패션관련 대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소모적인 일회성 행사로 종종 비판받아 온 의상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업계와 연계해 취업으로 연결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대학별 졸업작품 발표회와 패션업계의 인력채용 상담회를 통합해 패션업계에는 인력 적기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패션센터 2, 3층에서 모델라인이 단독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모델라인 이재연 회장은 IMF사태 이후 어려워진 대학들의 경영 상태를 감안해 저렴한 비용으로 졸업작품 발표회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패션협회에 행사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1회 행사에는 건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대, 성신여대, 한서대 등 7개 대학교가 참가해 전시회와 패션쇼 그리고 채용 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구직 희망인원 357명 중 70명이 35개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직률이 떨어지고 학교의 독자적인 졸업작품 발표회 개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2001년 4회 행사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 마라고니 장학생 선발 패션 콘테스트 개최

1998년부터 2년간 마라고니 패션 스쿨 *Institute Marangoni* 과 공동으로 우수한 패션인재의 이탈리아 패션 유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라고니 장학생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유학 대상은 1년 과정의 디자이너 마스터 과정, 프로덕트 매니저 마스터 과정, 패션 바이어 마스터 과정 등 총 17명이었다. 수상 내역으로는 먼저 대상 2명에게는 장학금 1천8백만 리라(한화 약 1천4백만 원)와 학비 전액 지원, 이태리어 과정 6개월 수강 등의 부상이 주어졌고, 입선 15명에게는 장학금 900만 리라(한화 약 720만 원)와 학비 50%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현재에 종사하는 패션인재들의 이탈리아 유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 국내 프로모션업계 활성화 대책 마련

**요약서 (초록)**

<b>개 제 기</b>	패션프로모션업계의 발전 방안		
<b>주최기관</b>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일양행	조 근화
<b>연구기관</b>	1999년 3월 20일 ~ 1999년 12월 20일(연구기간)		
<b>주 제</b>	시계절별 특색있는 프로모션, 할인판매, 할인카드, 할인카드, 할인카드, 수익률 향상, 신제품, 이윤율, 판매, 프로모션, Study, 할인카드, 1999년 12월 20일		

**1. 문제점 개요**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경영의 경쟁력과 재무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 능력을 가진 패션프로모션업계의 발전전략을 연구함으로써, 패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패션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추진시켜, 한국의 패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중요성

- 한국의 패션산업이 WTO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수입대체의 특은, 선진국의 선제, 수출확대 등 국제 2000년대 관련 시급화되는 실정에서 국내의 패션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한국 패션산업의 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품기획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기업의 전문화 재무구조 향상이 요구됨. 이같은 시사점을 고려, 생산하는 패션프로모션업계의 특성은 이윤율 상승 등 통해 경영이익 증가와 재무상태의 개선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DN - WDN

- 1 -

이화여대 조규화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패션프로모션업계의 발전전략 보고서

패션 브랜드에 상품을 납품하는 영세한 프로모션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협회와 통상산업부 지원을 확대키로 협의하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패션협회는 프로모션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책임지는 대신 통상산업부는 프로모션업계의 벤처기업 지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 배승진 서기관, 이화여대 조규화 교수, 클라라 정환상 회장 등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회장이었던 이화여대 조규화 교수에게 프로모션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1999년 12월에 「프로모션 산업의 발전전략」을 발간하였다. 이 발전전략에 따라 니트윈 남성설 대표, DFC 김영찬 대표 등이 주축이 된 프로모션협의회가 패션협회 산하로 발족되어 서울국제의류박람회 공동관 참가, 2회의 바자회 개최, 벤처기업 지정 설명회 등의 활동을 수행했으나, IMF사태 이후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아쉽게도 활동이 중단되었다.

## LA 캘리포니아 마트 공동 쇼룸 개설

1998년 2월 26일에는 미주 패션산업 총연합회 간사 *John Suh* 회장과 '미주 패션유통망 활용을 통한 세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200여 개 기업이 대거 참석해 IMF사태 이후 패션업체들 해외시장 진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3월부터 6월까지 관심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3차례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KFDA그룹(사라, 김연주, 래만, 삐띠앙뜨, 이느와), 드맹, 삼도물산과 프로모션업체인 니트윈, 전모드, 한강교역 등 10개사를 선정하고 LA 캘리포니아 마트 입점을 추진했다.

이어 10월 31일에는 섬유센터 3층에서 LA, 워싱턴,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캐나다, 브라질, 호주, 체코, 독일, 스위스, 중국, 베트남 등 27개의 해외 한인 의류 구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 한인 의류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11월 7일에는 KFDA그룹 5개 디자이너들이 현지 캘리포니아 마트 패션쇼장에서 입점기념 패션쇼를 개최하고 수주활동을 지속했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상품샘플 적기 공급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모두 퇴점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IMF형 원단 베틀시장 개최

패션업체들이 보유한 재고 원단을 필요한 수급자간에 교환 판매함으로써 자원 절약은 물론 IMF사태 이후 업계의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 하에 1998년 2월 25~27일, 5월 12일~16일, 9월 7일~11일 등 모두 3차례의 원단 베틀시장을 개최했으며, 1999년도에는 2회 개최했는데, 이는 당시 IMF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패션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1999

## 패션 벤처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1999년부터는 IMF사태 이후 유행하던 벤처소기업의 범위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 벤처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패션상품의 수출확대와 고용창출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통상산업부로부터 3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15개사 내외의 패션 벤처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제공-상품기획-유통-해외진출 등 일련의 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패션 벤처소기업이라 함은 패션의류 디자인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보기획사를 통한 상품개발 정보제공, 전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지원, STAR-TV를 통한 홍보방영, 인터넷 활용 판매 지원 등을 실시했다.

## 해외 전문가 초청 패턴기술 지도

1999년 2월부터 8월까지 패턴디자인의 노하우 습득과 업체 활용 극대화를 위해 중견 패턴사 교육, 업체진단 및 공개 세미나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중견 패턴사 신기술교육은 패션업체 종사 패턴사 30명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태리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국내 패턴 전문가를 기술지도요원으로 활용해 호평을 받았다.

패션기업 6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별 방문을 통해 패턴작업상의 애로요인을 지도 상담했으며, 7월 15일에는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패턴업무의 개선방향과 해외 패턴디자인의 경향에 대한 무료 기술설명회도 개최했다.

## STAR-TV를 통한 서울패션 홍보

서울패션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서울패션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패션 선진도시와 차별화되는 서울패션의 가치 홍보활동 전개했다. 먼저 서울의 이미지와 패션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 세계 20억 명이 시청하는 국제적인 위성방송인 STAR-TV 'V'채널의 고정 프로그램인 미러 인 서울 MIRROR IN SEOUL 중 서울 플래시 코너를 통해 방송했다.

서울 플래시 SEUL FLASH는 토요일 15:00~15:10(본방), 일요일 16:00~16:10(재방) 주 2회 STAR-TV 'V'채널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방영되었으며, STAR-TV 본사에 의뢰하여 매분기별 시청률을 조사하고 방송내용을 조정하였다. 방송물 제작 대행사로 멀티미디어 GV를 선정해 STAR-TV와 계약을 맺고 방송물 제작과 송출을 전담하게 했다.

서울패션 홍보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많은 서울의 패션거리와 패션브랜드, 패션디자이너를 아시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컸지만 서울시의 통합 홍보 정책으로 인해 아쉽게 폐지되었다.

# 2000

## 밀레니엄 여성경제인 패션대전

뉴밀레니엄을 맞아 패션협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밀레니엄 여성경제인 패션대전'을 2000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패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패션쇼, 우수브랜드 상품전, 세미나, 패션피날레, 디자인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안윤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패션쇼는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패션업체의 브랜드에 한하며 의류와 액세서리의 조인트 쇼로 구성되었다.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가 주관한 세미나는 21세기 여성의 삶과 패션, 여성경제인과 패션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열렸고, 홍보관에서는 국내 패션디자이너 20명의 특별상품전과 패션디자인 시물레이션, 제작과정 시물레이션, 각 교육기관에 대한 소개 등의 행사가 마련되었다.

패션협회는 행사 중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여성패션경제인상도 수여했다. 참여업체는 패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 패션의류전에 16개사, 패션액세서리전에 6개사가 참여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밀레니엄 여성경제인 패션대전에 맞춰 패션기자, 패션사진작가, 학계, 모델 에이전시 등 전문가 108명으로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선정 작업을 벌여 여성 패션디자이너 20인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업적과 장래성이었다.

선정된 디자이너는 루비나, 이신우, 이영희, 진태옥, 김선자, 김연주, 윤광자, 문영희, 박춘무, 설윤형, 안윤정, 오은환, 이광희, 이영선, 지춘희, 홍미화, 박지원, 우영미, 윤한희, 임선옥으로 기성 및 신진디자이너를 망라했다.

이들은 패션업체를 설립하고 패션쇼 등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 겸 여성경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브로마이드, 비디오 상영 등 관련 자료가 '밀레니엄 여성경제인 패션대전'을 통해 특별 전시되었다.

## 서울컬렉션 아셈 패션 갈라쇼

아셈(ASEM) 서울 개최를 축하하는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의 무대인 '서울컬렉션 아셈 패션 갈라쇼'가 2000년 10월 21일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아셈 총회에 참가하는 25개국 영부인을 위해 별도의 공식 문화행사로 기획되었다.

참가 디자이너는 김영주, 문영희, 박춘무, 안윤정, 이정원, 이신우, 이영희, 이정은, 지춘희, 트로아조, 홍미화, 홍은주 등 총 12명이었다. 이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어울림'을 주제로 다양한 의상을 선보였다. 전체적인 패션쇼의 주제는 동서양이 하나 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1세기의 트렌드를 보여 주었다.

행사는 12명의 디자이너가 각기 3~4벌씩 특징적인 작품을 보여 주는 갈라쇼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춘희 디자이너는 '순정'이라는 주제로 면, 마, 울 등 고급스럽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였다.

디자이너 문영희는 소년·소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예술적이고 지적인 작품으로 선보였고, 이영희는 닥종이와 모시처럼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한국적 소재와 전통적인 염료와 기법으로 얻어낸 색상을 사용한 의상을 선보였다. 트로아조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여성스러운 선을 강조한 정통적인 오프트르르(맞춤정장)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의 이면에서는 영부인들의 좌석배치 등을 둘러싼 각국 대사관들의 집요한 로비와 이휘호 여사를 사이에 두고 외교부, 문화부, 산업부 간의 팽팽한 자리 신경전이 벌어져 행사 주관사인 패션협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 서울컬렉션 개최

2000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메리어트호텔 6층 밀레니엄홀에서 한국의 하이패션을 이끄는 정상급 디자이너 12명이 참여한 제1회 서울컬렉션을 개최했다.

서울컬렉션은 1986년부터 시작된 서울패션위크의 패션쇼 부분을 분리해 독립 행사로 진행된 것으로, 디자이너 그룹인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SFAA),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KFDA), 뉴웨이브인서울(NWS), 개별 디자이너들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컬렉션을 통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행사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미 1999년부터 패션협회는 통상산업부, 서울시 등을 방문하여 컬렉션의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여성 포털사이트 여자와닷컴을 운영하던 우먼드림의 한영아 부사장을 서울컬렉션의 디렉터로 선정했다. 한영아 부사장은 뉴욕패션위크를 진행하는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FDA) 사무국장 편 델리스를 만나 조인을 구하고 해외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서울컬렉션이 나아가갈 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

2000년 봄에는 주상호 부장이 한영아 부사장, 통상산업부, 서울시 사무관과 함께 도쿄컬렉션을 주관하고 있던 도쿄 패션디자이너협회(CFD)를 방문해 디자이너 선정, 준비사항, 진행 노하우, 홍보에 관한 많은 자료를 받고 서울컬렉션 기획안을 작성했다. 원래 CFD의 쇼코 히사다 부회장은 서울에서 온 생면부지 방문객의 면담을 수락하지 않았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섬연신문 등에 중개를 부탁하여 어렵사리 방문이 성사되었다.

CFD의 좁은 회의실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먹으며 6시간가량 협의를 마친 후 고맙다는 작별 인사를 건네자, 히사다 부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티미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의 열정에 끌려 너무 많은 것을 알려 드리게 된 것 같으며 파안대소했다.

제1회 서울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김연주, 문영희, 박춘무, 안윤정, 이신우, 이경원, 이정은, 지춘희, 트로아조, 홍미화, 홍은주 등 총 12명이었다. 이후 2001년 춘계 서울컬렉션에 26명, 2001년 추계 서울컬렉션에 29명 등 서울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갔으나, 예산을 지원한 통상산업부와 서울시뿐 아니라 디자이너 그룹, 패션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동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일례로 2000년 추계 서울컬렉션은 KFDA, NWS, 개별로, 2003년 춘계 서울컬렉션은 SFAA, KFDA, NWS, 개별로, 2003년 추계 서울컬렉션은 KFDA, NWS, 개별로, 2004년 춘계 서울컬렉션은 SFAA, KFDA, NWS, 개별로 참여를 둘러싼 디자이너 그룹간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진행 순서를 둘러싼 그룹간의 이견으로 인해 급기야는 매회 순환하는 진행순서표를 만들기까지 했다.

# 2001

## 패션 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2001년부터 패션시장의 수요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예측 데이터로 가공하여 패션업계의 상품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패션 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서울(강남·북), 인천, 분당, 일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패션 스트리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10개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봄·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소비자 착장과 유통환경을 조사한 후 예측정보를 가공하여 업계에 제공했다. 수요예측 사업을 위한 소비자 착장조사는 삼성패션연구소가, 유통환경 조사는 C&T Union이 맡아 진행했다.



- ① 빈틈없이 꽂들어간 서울컬렉션 관객들
- ② 제1회 서울컬렉션장의 취재열기 현장
- ③ 제1회 서울컬렉션 입장을 줄지어 기다리는 관객들
- ④ 제1회 서울컬렉션장에 처음 등장한 프레스룸
- ⑤ 서울컬렉션장 앞에 설치된 각종 홍보부스
- ⑥ 당시 디자이너그룹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KFPA-NWS-개별디자이너간 컬렉션 진행순서표

# 2002

## 중국 여성의류 시장 조사사업 실시

한류열풍에 의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패션업체들의 중국 마케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2002년 중국 의류소비시장 동향과 소비자 유행추구 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결과를 제공했다.

조사지역으로는 중국 광둥성에서 하얼빈까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시장규모, 수요변화, 산업현황, 유통구조 등 중국 의류소비시장 동향과 신체치수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소비특성 등 중국 소비자의 유행추종 동향을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하였다.

## 2002 월드컵 기념 한일 패션 페스티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연계해 '2002 한일 패션 페스티벌(KJFF)'을 개최해 월드컵 분위기 조성과 양국 패션문화 교류를 도모했다. 이 행사는 한국패션협회와 일본패션협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한국 행사는 2002년 5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일본 행사는 2002년 6월 22일 동경의 마쿠하리메세에서 개최되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한자리에 소개하는 자리로, 영상과 현대무용, 퍼포먼스, 뮤직비디오와 함께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이어 제일모직의 빈폴과 후부과 온워드의 ICB, 월드의 COUP DE CHANCE 등의 브랜드 패션쇼도 펼쳐졌다.

또한 원지해의 엔젤핑크, 이정은의 라바우먼, 임선옥의 에고 등 국내 디자이너와 आयु미 야마다의 블런디blondy, 유이키 쿠로다의 레드뮤지션LAD MUSICIAN, 코스케 슈무라의 파이널홈FINAL HOME 등 일본 디자이너도 참가했다.

아울러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린 일본 행사는 양국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메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을 대표해 루비나, 설윤행, 홍미화 디자이너가 선정되어 한국 패션디자인의 수준을 일본에 알렸다.



2002한일패션페스티벌기간중 일본패션협회 회장과 한일중앙인 공석봉 회장, 유기재 부회장



2002한일패션페스티벌 축하식



2002한일패션페스티벌중 문화공연



2002한일패션페스티벌 리셉션 인사말씀중인 공석봉 회장

2002

# 2003

## 아시아패션연합회(AFF) 발족

아시아 패션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 패션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인 단체인 아시아패션연합회(AFF)가 2003년 12월 10일 일본 동경 롯본기 힐즈모리타위에서 한국패션협회 공석봉 회장, 일본패션협회 및 중국패션협회 회장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 패션 물류단지 건립 추진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영업경쟁력 제고로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보그 레머천다이징, 마담포라, 데무, 끌레몽프, 사라 등 사업에 관심 있는 10여 개 회원사가 공동 물류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2003년 13차에 걸친 대표자회의를 통해 20~30만 원대 약 3만 평의 부지를 경기도 광주, 용인, 이천 등의 지역에 확보하자는 뜻을 모아 부지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은 앞섰으나,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경험을 갖춘 개발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2004년 원대연 회장 취임 이후 전문적인 디벨로퍼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이천 유통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위원회는 공석봉 회장과 임창곤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디자이너 김선자, 박경로 대표 등을 비롯한 패션업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AFF 한국위원회 발족을 위해 코디오의 정기자 대표, 인터플랜코리아의 윤정옥 대표 등이 3개국 패션협회의 입장을 조율하며 산파역을 맡아 수고했다.

아시아패션연합회는 발족식을 통해 개인과 기업, 단체들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를 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3국의 다양한 패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3년 한·중·일 3개국 회장이 서명한 AFF 합의서



구분	국명	협회명	회장	사무총장
한국	대한민국	한국패션협회	공석봉	김창곤
		한국패션협회	공석봉	김창곤
		한국패션협회	공석봉	김창곤
일본	일본	일본패션협회	원대연	김정호
		일본패션협회	원대연	김정호
		일본패션협회	원대연	김정호
중국	중국	중국패션협회	정기자	윤정옥
		중국패션협회	정기자	윤정옥
		중국패션협회	정기자	윤정옥

2003 AFF 발족식 참석한 한국측 인사명단

- ① 2003 AFF 발족식
- ② 2003 AFF 발족식에 함께한 김규열 회장
- ③ 2004 AFF 한국총회 환영리셉션에 참석한 공석봉 회장, 원대연 회장

- ④ 2004 서울컬렉션장을 방문한 일본패션협회 회장과 함께
- ⑤ 2004 AFF 한국총회를 마치고 서울컬렉션 장관한 각국 대표단들
- ⑥ 2003 AFF 발족식에 함께한 한·중·일 3개국 패션협회 회장단
- ⑦ 2004 AFF 한국총회 행사장앞에 모인 각국 대표단들

## 월드 디자이너 육성사업 실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 3명을 선정하여 2년간 정책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월드 디자이너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통상산업부와 서울시가 연 4억 원을 지원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실시했다.

선정기준은 성장가능성 40점, 디자인 독창성 20점, 상품성 20점, 활동경력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심사자로 검토, 공개토론 후 대상자를 10명으로 압축한 후 인터뷰 등을 통해 문부떡(문영희), 엔주반(홍은주), 지해(김지해) 등 3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패션쇼 진행비와 홍보마케팅 경비로 연간 1억 원씩을 지원하며 해외 컬렉션 활동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사업의 민감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엄격한 심사위원 구성 등 사업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탈락한 디자이너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시행 2년 만에 첫 번째 수혜 디자이너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 월드 디자이너 실패가 주는 교훈

원래 월드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위해 패션협회는 산자부, 서울시와 함께 10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디자이너 선정을 하려고 보니 선정 기준이 문제였다. 이때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당시 제일모직 대표이사였던 원대연 회장이었다. 그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제일모직 본부장을 지낼 때 “성공한 디자이너 한 명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제일모직에서는 국제 팀을 따로 구성해 일본, 미국, 유럽 등지로 나가 한국계 디자이너나 혹은 외국계 디자이너를 조사했는데, 원대연 회장은 제일모직에서 추진했던 월드 디자이너 선정에 대한 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고 적합한 절차를 걸쳐 3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 결과에 불복한 몇몇 디자이너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냈고, 결국 당시 월드 디자이너 선정을 주도했던 공석봉 회장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패션협회도 추궁을 당했다. 합법적인 조직인 패션협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난과 모함을 받게 된 것이다.

월드 디자이너 선정은 10인의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제일모직에서 진행된 3년간의 월드 디자이너 프로젝트 데이터를 이용해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산자부와 서울시는 일부 디자이너들의 반발이 일자 프로젝트 자체를 백지화시켰다. 디자이너들의 처신에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당장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를 지속해야 긍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자신이나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데 너무 성급했던 나머지 그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원대연 회장은 패션협회 회장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월드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다시 건의했지만, 정부로부터 거절당했고 이 프로젝트는 결국 부활하지 못했다.

2003년

## 원대연 SADI 학장, 한국패션협회 6대 회장 취임

한국패션협회는 2004년 3월 19일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원대연 SADI 학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원대연 회장이 한국패션협회 신입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패션협회는 거의 부실 경영 상태였다. 직원들의 급여가 밀린 것은 물론 갚아야 할 빚이 6억 5천만 원이나 누적되었다. 여기에 월드 디자이너 선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회장이 조사까지 당하게 되자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회장단 사퇴론이 부상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공석봉 회장은 자신에 이어 회장직을 맡을 적임자로 원대연 사디 학장, 신흥순 대표, 박풍언 대표를 내정하고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제일모직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디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대연 회장은 처음에는 제의를 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장직 제의를 거절한 뒤 심사숙고에 들어간다. 삼성그룹에서 30년 동안 패션계에 종사해 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거치면서 패션 분야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톨릭 신자로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직시 줄곧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 협조해 온 인연으로 제일모직에서 퇴직하고 한 달 만에 패션협회 회장직 제의가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기업에서 경영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원대연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부실덩어리인 패션협회를 맡아 경영하는 것은 위험 요소도 컸다. 하지만 당시 패션협회를 맡고 있던 공석봉 회장은 개인의 의지보다 공익성이 중요하며 일주일 동안 원대연 회장을 설득했다. 결국 원대연 회장은 회장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상근 부회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달라는 것이었다. 본인이 현직에 있어 바쁘고, 무엇보다 자신은 계획과 혁신을 하는 성격인데 공무원 출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직 부회장 선임 전권에 대한 문제도 결론나지 않은 상태였고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던 어수선한 상황이었기에 원대연 회장은 공석봉 회장에게 협회장을 맡을 수 없다며 내일 총회에 참석 불가능을 통보했다. 그러나 다음날 임시총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만장일치로 원대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어쩔 수 없이 회장직은 맡게 된 원대연 회장은 취임식도 생략하고 먼저 협회 임원사와 간담회부터 가졌다. 자의반 타의반 회장직을 맡았지만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물러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다시 한 번 부회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상근 부회장은 패션 산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직 관리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을 하니 이에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 전광부 상근부회장 선임

결국 원대연 회장은 패션 관련단체 중 최초로 민간기업 출신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2004년 4월 28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광부 상근 부회장을 선임하였다. 전광부 부회장은 삼성물산 에스에스 출신으로 그랜드백화점 전무와 뉴코아 대표를 거친 패션과 유통의 전문가로서, 원대연 회장의 의지에 따라 목표관리제도, 연봉제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기업출신 부회장 선임은 지금까지처럼 정부에만 의존하여서는 자립기반을 영원히 구축할 수 없고 기업체질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철학과 의지의 결과였다.

## 패션협회, 체질 개선과 재무구조 개편에 나서

패션협회 내부도 문제였다.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니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원대연 회장은 직원들에게 패션협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은 70%가 임원들의 몫이고 30%가 직원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해고 없이 고용 승계를 하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달했다.

아울러 “협회의 고객은 정부가 아니라 회원사이다”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주문했다. 관료적인 마인드로는 협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협회의 고객은 회비를 내는 회원사이고, 회원사가 잘되어야 협회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외부에 있을 때에는 패션협회가 어려우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입찰 경쟁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치열한 상황이었다. 3개월 만에 잔조금을 낼 수 있는 유력 회원사를 독려해 50%의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노력해서 확보하기로 하였다. 취임 첫 해 당시 사디 학장이었던 원대연 회장은 학교 일을 거의 못 하고 2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어려운 상황이었던 패션협회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먼저 패션협회 경영이 안정되어야 회원사를 위해 패션협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의 협조를 부탁해 25개사로부터 3억3천1백만 원의 특별 협찬금을 모금했다.

아울러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94개사를 신규 회원으로 유치하여 회비 1억1천2백만 원과 바자회를 통해 3천6백만 원을 모금했고, 이 밖에 연봉제 도입으로 3천3백만 원, 퇴직금 단수제 전환으로 3천만 원 등 총 5억4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취임 1년 만에 부채 6억5천만 원을 3억5천만 원으로 축소시켰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사무국을 6개 팀으로 구성해 팀별 업무성과 평가 후 연봉을 재조정하는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했으며, 적극적인 신규 회원 영입 확대를 통해 2005년 말 회원사 수가 306개 사로 확대되었다.

## 패션협회 홈페이지 소통 형으로 업그레이드

원대연 회장은 취임 이후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제공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던 패션협회 홈페이지부터 리뉴얼했다. 회원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유익한 정보를 회원사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디자인을 새롭게 산뜻하게 고치고 협회에서 유래가 없던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유치했다.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만 11개 배너광고로 2천4백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당시 유관단체 홈페이지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 배너광고를 유치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원 회장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부터 체크를 하면서 모든 직원들도 홈페이지 체크를 생활화하도록 독려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패션협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콘텐츠 내용을 보강하고 디자인을 리뉴얼하면서 동시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회원사 홍보내용, 고급 패션정보를 강화하고 금주의 회원사, 구인구직 센터, 경영효율 정보 마당 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Q&A를 강화하여 회원사나 업계 등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09년도 홈페이지 방문 조회 수가 16만 건에 이르게 되었다.

## 교육사업과 세미나 강화로 회원사에 어필

원대연 회장은 교육사업도 강화했다. 당시 수입 브랜드의 강세로 인해 내수 브랜드의 어려움이 컸다. 특히 1994년부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중국 관련 교육부터 실시했다. 먼저 능력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회원사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조치였기에 회원사들의 반응이 좋았다.

세미나도 강화했다. 원대연 회장 취임 당시에는 섬유센터 17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미나와 패션협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 장소부터 바꿨다. 비록 자금 사정은 여의치 않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협회가 회원사를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는 격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호텔에서 열리는 조찬 세미나로 업그레이드하고 1년에 2회 실시하면서 성리학 영원무역회장, 김종갑 산업부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유명 강사를 초빙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르네상스 호텔로 옮겨 Tex+Fa 조찬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 ① 2005년부터 호텔에서 개최된 조찬세미나
- ②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 조찬세미나
- ③ 조찬세미나에서 인사말씀 하는 원대연 회장
- ④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패션CEO포럼



④



## 원대연 회장과 패션협회와의 인연

패션협회의 행사 비용은 원대연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후원 의존도가 컸다. 제일모직 대표였던 원대연 회장과 현대백화점 이병규 사장은 당시 패션협회가 어려울 때 파격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먼저 이병규 사장은 평소 백화점 주요 고객이 패션업체이므로 패션협회를 돕는 일이 고객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바자회를 통해 마진의 20%를 패션협회에 협찬하였다. 덕분에 패션협회에 돌아올 수 있는 고정 수익이 생겼다. 물론 백화점 내 반발도 있었지만 이병규 사장은 독심 있게 바자회를 밀어 붙였다.

원대연 회장도 제일모직 대표로 재직하면서 패션업계 지원에 일조했다. 패션협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비쳤지만 공석봉 회장만 알 뿐 중견기업 사장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패션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업계에 뭔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철학을 가졌기에 최대한 패션협회 행사에 참여키 위해 노력하였고, 어느 날 공석봉 회장과 유기재 부회장이께서 도움 요청이 들어왔다. 1995년 대한민국 패션대전을 개최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줄어 행사를 못하게 됐다며 2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이라는 국내 최대 패션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패션산업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흔쾌히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도 디자인 콘테스트를 만들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록 정부 사업이지만 젊은 유망 디자이너들의 희망이었던 국내 최대 디자인 콘테스트 행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주관 때문이었다. 이후 제일모직에 재직하는 동안 실리를 떠나 명분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패션행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일례로 2001년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문화부에서 주최하고 국제패션연구원에서 주관한 '한국복식 1000년' 경복궁 패션쇼에도 한국복식 1000년을 복원하는 최초의 시도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뜻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1억 원을 기꺼이 지원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일면식도 없던 SFAA 컬렉션에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최초로 연봉제 도입, 1인 1목표 실천과 회원사의 확대 다변화

한편 원대연 회장은 취임 후 패션협회 직원들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 협회 사상 최초로 연봉제를 도입한다. 연봉제와 함께 수익 마인드 제고를 위해 1인 1목표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회원사 가입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 회비 수금 목표를 세우고, 세 번째 사업 외 이익창출 목표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협찬금 목표를 세웠다. 연말 연봉 협상시 개인 목표와 달성도를 평가해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임금을 책정했다.

조직이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초기에는 질박함과 악착같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패션협회라고 하면 대부분 서울컬렉션만 연상했다. 패션협회가 디자이너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셔널 브랜드의 존재 가치가 낮았다.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의 수를 대폭 늘렸지만 디자이너 출신 회원들 사이에는 회장이 내셔널 브랜드 사장 출신이라 내셔널 브랜드 편만 든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컬렉션에만 올인하는 패션협회 분위기를 바꾸었다. 회원사가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원사의 영역을 미디어, 방송, 유통 등 패션관련 유관 기업으로까지 다변화하였다.

특히 그는 고객인 회원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체 방문을 독려했다.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협회로서는 잦은 방문인사와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회원사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미납회비가 누적되면 부실 회원사가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정보를 교류하는 현장주의를 실시하자 3년이 지난 후에는 드디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다소 더디었지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2007년에는 어느 협회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회비 수거율 90%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결국 패션협회 위상을 올리는 노력과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가 통한 셈이다. 취임 초 협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 직원의 급여를 10% 삭감 조치하였다. 그 후 3년간 실적부진으로 급여가 동결되어 어려움을 참아 온 임직원들의 사기를 고려, 간부 전원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특히 10년 동안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취임식을 치르지 않을 정도로 원대연 회장은 패션협회의 조기정상화만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경영철학을 실천해 왔다.

##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해외 단체 교류

글로벌을 향후 패션협회의 방향으로 제시한 원대연 신임 회장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패션단체 및 외국 대사관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이에 파리의상조합 디디에 그랑박 회장과 파리 프레타포르테협회 모쵸 회장, 그리고 일본패션협회 가와무라 전무, 중국복장협회 지양 행 지에 부회장, 심천패션협회 셴 용 팡 부회장 등 해외 패션단체뿐 아니라 프랑수와 데스쿠엣 주한 프랑스 대사,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와 면담하고 상호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2004년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프리미에르비종 및 런던 컬렉션 참관단을 구성해 런던 패션위크 전시 및 컬렉션 참관, 프리미에르비종 참관 및 밀라노 패션시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디디에 그랑박 회장과 파리의상조합의 추진사업, 정부지원, 파리 컬렉션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들었다.

2004  
BI-PHASE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 이천 패션유통 물류단지 건립



이천유통물류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원대연회장



이천패션유통물류단지내 중앙도로



단지 내 들어선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물류단지 건립은 회원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회장에 취임해 보니 회비만 요구치 말고 회원사를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 회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미 패션협회에서는 용인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땅을 보러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땅을 살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원대연 회장은 회원사가 고객이며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많은 고민 끝에 “우선 회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또 도움을 받게 되면 회원사들이 협회를 신뢰하게 되고 결집력으로 제2, 3의 사업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허약한 협회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세 가지의 뜻을 세우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된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가치가 높은 복합 유통물류단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대형 아울렛 전문 디벨로퍼인 브라이트유니온 한창우 대표를 참여시켜 전문가적 식견에서 적정 부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회원사들의 건립 희망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안)을 작성했다. 이어 2004년 12월 2일과 14일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통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의향을 접수받았는데 총 32개사가 참여의향을 표시했다. 물론 원대연 회장 자신도 참여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2억 원을 참여하게 된다. (그 뒤 자본금 확충이 완료된 시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함.)

2005년 1월 31일에는 자본납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8일에는 자본금 90억 원을 모금하여 11월 30일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KOFAD : Korea Fashion Distribution)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각자 대표에 원대연 회장과 브라이트유니온의 한창우 대표를 선임하였다. 원대연 회장은 회원사들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창우 대표는 인허가 및 개발의 실무업무를 진행했다.

2005년 4월 4일에는 주요 주주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구성원은 YK038 이경수 전무, 보크레머천다이징 박영배 전무, 영원무역 허호기 감사, F&F 최동섭 상무, 한섬 김석주 상무이며, 사무국 주상호 상무가 간사 역할을 맡아 매월 마지막 화요일 10시에 경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횟수로 10년, 횡수로는 120회 이상을 개최하며 진행사항 점검과 추진사항 협의 등 실무업무를 진행했다.

이천 단지는 원래 문중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박경로 부회장의 노력으로 매입이 성사되었다. 몇 차례의 증거를 거쳐 자본금이 180억 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족키 위해 YK038 권재철 회장이 대주주로 영입되었다. 당초 산지 보존지역으로 허가가 쉽지 않은 부지였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지역 균형발전 전 정책에 따라 개발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MB정부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고용촉진 정책 등에 힘입어 2009년 11월 27일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일일이 밟힐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고통의 과정을 거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주사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유지 등을 대동하고 일본 고텐바를 방문하여 사업모델을 보여 주며 설득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천 중앙통 상가 등을 보유한 일부 지방상인들의 반대와 갖가지 방해공작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추진 자체가 몇 차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진 고생 끝에 2012년 4월 드디어 단지 사업준공 허가를 받고 참여업체와 패션업체들에게 물류지역을 분양할 수 있었다. 상업지역의 경우는 롯데아울렛이 이미 오픈되었고, 영원무역과 위비스의 유통시설도 건축심의 중이며, 지원시설 잔여분 2만3천여 평의 분양이 마무리되면 국내 최초의 단일업종(패션) 대규모 물류단지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된다.

10년 넘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숙원사업인 물류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패션협회를 만들고 참여해 준 23개 업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들 업체들이 결국 대규모 물류 부지를 확보하여 현대화된 물류창고를 건립하고 또 투자 대비 합당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된 점은 지금 생각하여도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천 물류단지 프로젝트는 원대연회장의 집념 하나로 일구어 낸 승리의 결과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화 같은 스토리였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패션협회의 모든 추진사업에 신뢰를 더해 주는 엄청난 무형자산을 가져다주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20억 원의 패션협회 공로금은 부채상환과 함께 창립 30년 만에 자가 사무실을 구입하는 시드머니가 되었다.



영원무역 물류센터



에프앤에프 물류센터



매입한 24만평 부지에 진행중인 토목 공사현장

▼ 이천패션유통물류단지 조감도



# 2005

2005

## 패션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교류 시작

패션협회는 원대연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 관련단체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했다. 먼저 지역 패션협회와의 교류 및 공동 추진사업 협의를 위해 한국패션협회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주패션협회(또는 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패션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연 2회 순회모임을 갖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2005년 5월 11일에는 대전 한정식당 '이계원'에서, 10월 20일에는 부산 한정식당 '삼오정'에서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매년 봄, 가을 정례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패션과 소재 관련단체들의 교류를 위해 2005년 11월 1일, 패션소재협회 운영상 부회장, 소모방협회 김정원 전무,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김성록 상무와 기획원단 전시회 개최 등 공동사업 추진을 협의했다.



2013년 추계서울컬렉션 방문한 광주, 부산, 전주, 대전패션협회 대표들

## 해외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지원 시작

1985년 창립부터 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패션협회는 2005년 들어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즉 해외 전시회 참가업체 이외에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해외 전시회의 경우, 파리 프레타포르테,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동경 IFF, 상해 국제 의류전시회, 독일 CPD, 파리 인디고 등 총 8개 전시회 94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파리 패션위크, 뉴욕 패션위크, 도쿄 패션위크, 차이나 패션위크 등에 참가하는 우영미, 문영희, 이상봉, 홍은주, 강진영, 이영희, 한송, 최창호, 배영진, 임현희 등의 디자이너들에게 총 3억 원의 경비를 지원해 해외활동을 지원했다.

## 패션협회 산하에 중국위원회 발족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 2006년에는 중국 진출업체가 겪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진출경험과 노하우, 각종 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보끄레머천다이징 이만중 회장의 제안에 대해 원대연 회장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중국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중국위원회는 보끄레머천다이징 이만중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상하이에 패션협회 지사 사무실을 두고 직원 1명을 파견해 운영했다. 보끄레머천다이징, 이랜드, YK038, 삼지, 아이디룩, EXR코리아, GSGM, 형지어패럴 등 중국진출에 관심이 높던 8개사가 참여했으며, 2007년에 베이직하우스, 신원, 위비스가 참여해 총 11개사가 참여했다. 2006년 8월 22일 상하이 쉐라톤 호텔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8월 23일~25일 개최된 상하이 국제패션전시회에 참가해 전시와 함께 공동 패션쇼를 개최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중국위원회는 매월 상하이 사무실에서 11명의 중국 진출기업 상하이 지사장들이 모여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을 협의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중국 케어라벨 교육, 상표등록 및 모조품 방지 교육, 판매사원 공동교육 등을 진행하다가, 공동 물류센터 운영, 쇼핑백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인재채용 업무 제휴 등의 공동사업으로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키로 하였다.

2008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던 중국위원회는 사업의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진 이만중 회장의 진두지휘로 추진되다가 점차 현지 법인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구성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활동이 점차 부진하게 된 데다, 상하이지사 운영경비 증가 및 위엔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운영예산 부족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3년여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매우 유익한 아이디어였고 패션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모범사례였으나, 본사 최고경영자 차원이 아닌 현지법인장 차원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한불패션특별전'

2006년 10월 9일에는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패션쇼가 9일 파리 16구의 바카라 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주불대사와 프랑스의 패션관련 인사 및 프레스 등 3백 명이 참석하여 한국과 프랑스 패션업계의 교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패션협회 원대연 회장과 파리의상조합 회장 디디에 그랑박 회장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는 양국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5명씩이 참가해 창작 의상을 선보였다. 한국 측에서는 문영희, 우영미, 이상봉, 이영희, 홍은주 씨가 참가했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며 한불 패션산업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측에서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 웅가로의 피터 둔다스, 셀린니의 이바나 오마직, 스테판 롤랑, 소니아 리키엘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이너들이 출품했다. 음악 연출은 패션쇼 음악의 거장인 미셸 고베르가 맡았다.

원대연 패션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패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한국에서도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배출되고 있어 세계적인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탄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김인수 상근 부회장 취임

2007년 2월 22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김인수 상근 부회장이 취임하였다. 제일모직 홍보담당 상무와 중국 총괄임원을 역임했으며 2011년까지 근무했다. 김인수 부회장은 재직기간 중 협회 홍보체계를 정비하고 중국진출기업 지원방안 수립과 함께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 복종별 경쟁력 강화에 주력

2007년부터는 복종별 교류를 통해 공동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복종별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종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남성정장, 남성캐주얼, 여성정장, 여성캐주얼, 유아동, 골프스포츠 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분기별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주로 복종별 현안에 대한 주제를 갖고 토의하였는데, 예를 들어 유아동 위원회는 유아복 면세항목 추진과 유아동을 위한 뉴로마케팅, 남성정장위원회는 그린 프라이스<sup>Green Price</sup>와 탈정장화 경향 대응 방안, 캐주얼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대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동종 경쟁업체간의 모임을 지속하다 보니 각사의 추진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들어짐에 따라 2009년까지만 운영되었다.

## 충주 패션산업단지 건립 추진

2007년 연초부터 생산기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국내 패션업체들을 위해 수도권 인접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 첨단 패션의류 제조단지 공동 건립을 추진하자는 보끄레머천다이징 이만중 회장의 건의에 따라 충주 패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중저가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던 중국생산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제조공장들의 국내회귀가 예상되는데다가, 고가 패션의류 생산이나 단납기 오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신노동법 이후 중국 섬유패션 수출입 환경변화에 따라 친환경 첨단 제조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끄레머천다이징, 형지어패럴, 씬지, 동광인터내셔널, 득금물산, SD패션산업연구원, 신도섬유 등 7개사가 자본금 103억 5천만 원을 납입하여 주식회사MIK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보끄레머천다이징 이만중 회장과 충주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맹정섭 지구당위원장을 공동 대표로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MIK는 Made in Korea의 약자로 충주공단에서 생산된 패션의류는 품질이 보장되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씬지 천호균 대표의 아이디어로 확정되었다. 2007년 9월 10일 충주시장을 면담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후 11월 19일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8년 7월 14일 시행법인 설립과 함께 7월 18일 양성면 능암리 일대 약 11만 평을 매입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의 U턴기업 특혜 제외, 대체 생산인력으로 추진했던 탈북민의 정착시설 확보 난항 등 추진 당시의 취지실현이 예상과는 달리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현재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다.

# 2008

## 코리아 패션대상 시상식

1997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되던 서울패션인상이 2005년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예산삭감(5천만 원→2천만 원) 위기로 어렵게 행사를 치러 오던 중,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부상으로 주던 5백만 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 수상도 불가 판정을 받아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9회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협회의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상으로 상의 품격을 높인 새로운 시상식을 신설하자는 원대연 회장의 의지에 따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대연 회장은 노무현 정부 막판에 행정안전부로 직접 들어가 코리아 패션대상의 필요성을 설명해 대통령상 제정에 합의했지만, 섬유업의 날 행사와 겹쳐 상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코리아 패션대상을 추진해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지식경제부장관상 2점을 정부로부터 확보했다. 결국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1회 코리아 패션대상 시상식을 패션 CEO, 디자이너, 단체, 학계, 언론, 정부인사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선상 레스토랑 'On'에서 개최했다.

새롭게 변신한 코리아 패션대상 시상식은 업계의 사기진작과 회원사 친목도모를 위해 패션인 연말 송년행사를 겸해 진행되었으며, 첫째 영예의 수상자로는 대통령상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과 솔리드옴므 우영미 대표, 국무총리상에 에스모드서울 박윤정 이사장과 모델센터 도신우 대표, 지식경제부장관상에 위비스 도상현 대표와 론커스팀 정옥준 대표 그리고 입체패턴연구소 서완석 소장이 협회장상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후 코리아 패션대상 시상식은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4점으로 시상 내역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시상식의 특징은 브랜드뿐 아니라 패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연관분야(생산공장, 모델리스트, 평론, 언론, 정보, 스타일리스트 등)까지 시상하고, 협회장상을 패션인 전체를 대표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격상시켜 정부에서 주는 상 못지않게 품격을 높였다.

제1회 (2008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박성경 (주)이랜드 부회장 우영미 (주)솔리드옴므 대표	박윤정 에스모드서울 이사장 도신우 (주)모델센터 대표	도상현 (주)위비스 대표 정옥준 (주)론커스팀 대표	서완석 입체패턴연구소 소장
제2회 (2009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백덕현 코오롱FnC(주) 대표 이상봉 (주)이상봉 대표	김형섭 (주)PAT 대표 이재연 (주)라인피씨 대표	김상택 (주)엘케이트랜드 대표 김석원 (주)엔디엔텔 대표	이호정 이태이패션연구소 소장 이명희 보그코리아 국장
제3회 (2010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민복기 (주)에스알코리아 대표 노라노 (주)에일유행 디자인사	박용식 (주)신원 대표 김우중 (주)해공 대표 박윤수 (주)박윤수유통스타일 대표	최지형 최지형 대표 정혜서 스티프요니 대표	배천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지희 매일경제신문 차장
제4회 (2011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김성주 (주)성주디앤디 대표 손정환 (주)손정환 디자이너	김상택 (주)엘케이트랜드 대표 정영훈 (주)케이부코리아 대표 도상현 (주)위비스 대표	정소미 (주)디모델스 대표 민은선 (주)패션비즈 사장 최범석 (주)제너럴아이디어 대표 고태용 비온드클로젯 대표	공석봉 미래선협회 회장 장호순 패션협회 고문 허준 모드피어 대표 임병열 패턴 명장
제5회 (2012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김진형 (주)남영비비안 대표 박준우 (주)대우 디자이너	장기권 (주)인동에프앤디 대표 김성재 (주)아휴유평티 대표 곽영철 패턴센터 대표	한경애 코오롱FnC(주) 상무 김정미 제일모직(주) 상무 최철용 피와이초이 대표 이진운 이진운 대표	최현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황철규 신세계백화점 상무 김혜림 국민일보 부장
제6회 (2013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윤윤수 (주)힐라코리아 대표 문영희 (주)케이엔텔 대표	홍성영 (주)마리오아울렛 대표 정영수 (주)상화모데스미 대표 문일우 (주)잠문어패럴 대표	우장희 (주)폴리드 상무 이석태 카알이석태 대표 이병호 (주)블랙마크 이사 이도이 (주)도이 대표	이병규 문화일보 대표 안윤정 한아인티대셔널 대표 김성길 삼일리스 대표 이광우 영광아트 대표
제7회 (2014년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패션협회장상
신현균 (주)대현 회장 최복호 (주)씨앤브이 대표	권순영 YK038 대표 김문환 (주)엘케이트랜드 대표 임선옥 이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정윤기 인트랜드 대표	최익 (주)패션랜드 대표 명유석 (주)일앤아이 대표 계환희 카이 대표 백정흠 GS홈쇼핑 상무	김문수 세누리당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시중 한국섬유신문 대표 오은환 쿠안오은환 대표 오현숙 주한프랑스대사관 상무관 곽재우 GS홈쇼핑 상무



2008

## 강남 패션페스티벌 행사 운영

강남구의 패션 특구 지정을 축하하고 강남구의 패션산업 지원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왔으나, 행사 경험 미숙과 패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행사에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행사 경험이 풍부한 패션협회에 행사진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패션협회는 새로운 방향에서 행사안을 구성하고 2008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담동, 압구정동, 테헤란로 일대에서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대학생 패션쇼, 패션마켓, 한복 및 웨딩패션쇼, 루키 패션 콘테스트, 어린이 T셔츠 디자인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의 패션행사 중 대표적인 패션 문화 행사로 성공시켰다.

이후 2010년까지 3년간 패션협회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남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시킨 후 강남구 산하 강남문화재단에 행사 진행을 이관했다.

- ① 제1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수상자
- ② 제2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 ③ 제3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 ④ 제3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후 함께한 이용열 초대회장, 공석봉 건임회장, 원대면 현임회장
- ⑤ 제4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 ⑥ 제5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 ⑦ 제6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 ⑧ 제7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수상자

2008



## '패션, 문화를 만나다' 서울역사 패션쇼



입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된 강남패션페스티벌 패션쇼



입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된 강남패션페스티벌 현장스케치



강남패션페스티벌 기간중 개최된 베틀시장



강남패션페스티벌 현장스케치

패션협회는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구서울역사 1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패션, 문화를 만나다(Fashion Meets the Culture)'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날 패션쇼는 구서울역사를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패션쇼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패션문화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고, 문화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행사를 통해 패션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오프닝 행사로 문영희, 이상봉 디자이너가 작품을 발표했으며, 복합문화 개념의 새로운 형태의 패션쇼를 송혜명, 최범석, 하상백 디자이너가 발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패션산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흥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발표하고, 디자이너 문영희, 이상봉의 2009 봄/여름 컬렉션 및 주목받고 있는 무용가 이경은의 '춘몽' 현대무용이 진행됐다. 특히 드라마 '신의 저울'의 송창의와 김유미가 처음으로 패션쇼 무대에 서서 주목을 받았다.

둘째 날인 12일은 패션쇼의 창조성을 극대화하여 연극 공연과 같은 강렬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로 송혜명과 하상백 쇼가 진행됐다. 특히, 하상백 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며 강한 퍼포먼스와 함께 하드코어적 무대를 선보였다. 서울역사 패션쇼의 양일간 헤어와 메이크업은 최고의 아트디렉터 팀인 '오민 크리에이티브 팀'이 담당해 쇼의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주었다.

## 패션정책 아이디어뱅크, 전략위원회 출범

2008년부터는 패션정책 및 대정부 건의 자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도출된 내용을 사업화로 추진하기 위한 패션정책 아이디어뱅크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디자인, 경영, 해외진출, 유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글로벌, 경영유통, 인재양성, 디자인 문화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하여 사안별 모임을 가졌다. 첫 번째 회의가 2008년 3월 14일 개최되어 에프앤에프 김창수 대표를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내수활성화 방안,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추진, 그린패션, 패스트 패션, 패션과 IT의 융합, 해외 온라인 유통 등 각 분야 별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전략위원회는 패션산업 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패션산업 위상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한국패션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업계의 공식건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위원회로 출범하였다.

2011년 7월 15일 엘타워에서 패션업계 CEO, 디자이너, 학계, 컨설턴트, 미디어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초대 위원장에는 지오다노 한준석 대표를 선출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여 명으로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전체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에는 위비스 도상현 대표가 2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발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① 서울역사 패션문화를 만나다의 문화공연
- ② 패션쇼에 앞서 문화부 유인촌장관의 패션산업 문화지원발표
- ③ 서울역사 리모델링 기념 패션쇼에 참가한 이상봉 디자이너
- ④ 서울역사 패션쇼의 공연장면



2014년 발전소위원회 회의모습



MCM에서 개최된 발전위원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김성주 회장



전략위원회 발족식 위원들과 함께

# 2009

## 대외 활동과 정책 건의로 패션업계 이익 대변

2009년 들어 패션협회는 제조기술, 유통, 관세, FTA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많은 정책 건의를 통해 패션업계의 입장을 대표함과 동시에 업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섬유제품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0년 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유아용 제품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36개월 초과 12세 이하 아동용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대상에서 자율 안전 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며 안전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해피랜드, 보령메디앙스, 서양물산, 아가방 등 유아복업체 등과 수차례 대책 회의를 갖고 검사기관인 KOTITI, FITI, KATRI 등과도 협의절차를 진행했다. 8월 17일 환경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업계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를 제출하고 지속 협의한 결과, 36개월 초과 12세 미만 아동용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규제수준을 완화시켰고, 일부 유해물질 안전기준 규제 수준도 pH 4.0~8.0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등 3개 기본검사 비용 인하는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한 2009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은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섬유제품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대해 패션협회는 섬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전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패션의류제품의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의 차이로 자칫 소비자에게 당해 시즌 상품이 재고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적시한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2월 21일과 22일 2차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와 본 심사에서 원고 패션협회와 원고측 증인 모피조합, EU상공회의소 그리고 피고 기술표준원과 피고 측 증인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국만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관세장벽 논란과 통상마찰이 우려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대립이 심해 제조일자 표기 의무화는 개정을 철회하라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는 패션협회가 패션업체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의 지속되는 반발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재협의를 진행했으며, 2010년 9월 17일 제품 추정이 가능하도록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스타일 번호, 바코드번호, QR코드 중 어느 하나에 표기하는 것으로 시행을 완화하고 1년 유효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 차례의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 피해사례, 백화점 수수료 적정 여부, 부당한 경영간섭 중지규정, 반품금지 관련사항에 대해 패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위의 중재로 백화점협회의와 지속협의를 거쳐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 보급했다.

또한 국회 김정훈 의원과 코데스콤바인, 동광인터내셔널, 신원, 보그레머천다이징, EXR, 위비스, 에이션패션, 더휴컴퍼니 대표 등과의 네 차례의 간담회를 주최하고, 글로벌 브랜드 육성방안, 백화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중국진출전략,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2010년 7월 1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발표에 따라 지경부를 방문하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경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백화점 특정 매입의 경우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행사의 경우 POP 등을 통한 일괄 할인을 표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정리한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소책자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했다.

이밖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부착의무화 대응, 유아동 의류 관세율 인하, 관세행정상 중소기업 지원대책, FTA워킹그룹 참여 등 패션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정책건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 패션 화두에 대한 고민, 글로벌 패션포럼

2009년부터 한국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정책개발과 비전을 제시하고 패션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글로벌 패션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패션포럼의 주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슈를 발굴한 후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행사 후 수혜 확산을 목적으로 포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USB 수록 후 업계에 배포하고 있다.

매년 4~5백 명이 참가하여 패션업계에 던져진 화두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행사로 오전 기조강연, 오후 세션발표 및 토론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제는 1회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2회 그린 패션Green Fashion, 3회 컨버전스Convergence, 4회 감성경영, 5회 중국진출전략, 6회 신흥시장 진출, 7회 빅 데이터 등이었다.



2009  
40 YEARS HISTORY OF  
KOREA  
FASHION  
ASSOCIATION

- ① 제3회 글로벌패션포럼 폐막후 개최된 리셉션에서
- ② 제6회 글로벌패션포럼
- ③ 제7회 글로벌패션포럼

## 패션 관련 자료집 발간

2009년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전략지역 섬유패션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숙련집약형 토털 패션산업 현장인력양성사업, 글로벌 패션포럼의 결과물들을 자료집으로 묶어 발간하고 사업 수혜 확산을 위해 패션업계에 배포했다.

한국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사례, 해외 패션시장의 지역별 환경특성, 중국유통시장 현황, 중국 소비자동향, 중국 패션브랜드 분석, 중국 패션시장 현황분석, 패션VM의 A to Z, 한국 패션 소싱업체 리스트, 패션 슈퍼바이저의 업무이해, 셀렉트샵 흐름 및 최근 유통 변화, 소비자 감성을 매혹하라, 패션시장 및 유통분석 등 주로 글로벌 진출과 리테일에 관련된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여 업계에 배포했다.



##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패션쇼

## 한국 패션 100년 의상전시회

패션협회는 2009년 8월 29일에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패션행사를 중앙박물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옷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3천여 명의 패션계, 문화계, 주한 외교 사절, 일반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박물관 패션쇼'를 개최했다.

먼저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의 다양한 멋을 알리고자 '여명'(과거), '빛'(현재), '희망'(미래) 등 3부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고구려 고분벽화, 도자기, 공예품, 민화, 석조물 등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부터 모티브를 받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통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는 이날 패션쇼에 한복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선보였다. 고구려 벽화, 고려 불화를 원단에 프린트하거나 수로 표현해 고유의미를 살렸다. 여기에 오간자, 새틴, 시폰, 수직실크 소재에 붓나염 드레이핑 등으로 골드, 베이지, 화이트, 블랙, 그린 톤의 컬러를 이용해 한복의 정수를 선보였다.

이외에 한복 디자이너 신숙영, 이서운, 패션 디자이너 홍혜진, 최지형, 예란지 등이 패션쇼 무대를 빛냈다. 또 이번 행사에는 박물관 홍보대사인 최수종 등 스타들과 성악가 김남두와 안드 로이드 로봇 '에버'가 출현해 패션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는 박물관 유물 콘텐츠와 패션의 만남으로 박물관이 콘텐츠의 보고이며 창조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최광식 당시 국립박물관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다.

롯데백화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현대의상박물관이 주관하는 한국 패션 100년 의상전시회가 2009년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개화기부터 현재까지의 패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의상들이 등장한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비인 이방자 여사, 노무현 전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의상들을 흥미롭게 구성했다. 또한 앙드레김, 이상봉, 문광자, 박재원, 설운형 등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의 시대별 작품도 전시되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롯데백화점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통과 품격을 중시한 과거의 패션 세계를 복제 품이 아닌 진품으로 전시함으로써 고급스럽고 격조 있는 롯데백화점의 창립 정신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신혜순 한국현대상박물관 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역사적 고증작품은 물론 각 시대별 패셔니스타들과 귀부인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의상을 전시했다."며 "일반인들이 패션을 더욱 재미있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롯데 대전점 롯데화랑, 본점 아트갤러리, 광주점 갤러리를 순회하며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패션협회 장호순 고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 한국패션 100년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100명 소개

연도	이름	주요 업적
190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1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1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2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2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3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3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4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4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5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5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6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6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7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7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8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8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9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1995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2000년	김영희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현대외상박물관 신해순원장과 함께하는 한국패션100년 의상전시회

현대외상박물관 신해순원장과 함께하는 한국패션100년 의상전시회

### 해외 패션전시회 및 해외 컬렉션 대규모 본격지원

2009년부터는 기존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해외 패션전시회와 해외 컬렉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약 17억 4천만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30개 패션업체들의 전시회 참여와 15명 디자이너의 컬렉션 참가를 지원했다.

사업내용은 단체부스 참가, 공동부스 참가, 개별 전시 참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참가한 전시회로는 동경 IFF,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프리뷰 상하이, 홍콩 패션위크, 파리 후즈넥스트, 파리 프리미어 클래스, 밀라노 프레타포르테, 베를린 브레드&버터, 뉴욕 트레이드 등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권의 모든 주요 전시회를 망라하고 있다.



뉴욕코트리 한국관전경



뉴욕코트리 한국관전경



후즈넥스트 전경



후즈넥스트 한국관 바이어상담 모습

###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100명 소개

#### 100 Years of Western Fashion in Korea

연대	특징
1860-1930s	서양식 의복의 도입과 초기의 변용
1940s	전쟁 시대의 단색과 실용성
1950s	미용사들의 등장과 대중적 패션
1960s	젊은 세대의 반항적 패션
1970s	복합적인 스타일과 실험적 디자인
1980s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대중적 인기
1990s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대중적 인기
2000s	복합적인 스타일과 실험적 디자인

# 2009

## 구두·가방업체 지원 위해 성동 토탈패션 지원센터 운영

2009년에는 성동구 소재 약 7백여 개의 구두·가방업체들을 지원하고 패션업체들의 토탈패션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성동 토탈패션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2가 EM타워 1~3층 약 430평을 임차하여 쇼룸, 정보실, 교육장, 공동제작실, 창작스튜디오, 원부자재 창고, 회의실, 사무실, 입주업체 공간 등을 배치하였으며, 2009년 6월 29일 서울시와 센터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부경 센터장과 기술부장 등 3명의 상근 직원을 파견하여 SSTF 최고경영자과정, 가방 및 구두 실무교육, 미취업자 교육, '오픈 하우스 워크' 바잉쇼, 작업환경 개선사업, 인터넷 쇼핑몰shoebag.com 구축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서울시의 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2층으로 축소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패션협회 민육기 팀장이 센터장으로 파견되어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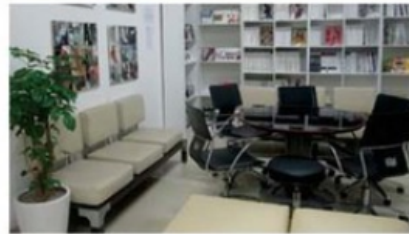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전경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내 공용장비실



창업보육과정중 가방제작 실습교육



토탈패션 트렌드북을 비치한 자료실



토탈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동쇼룸

## 한국패션협회와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 통합

아시아패션연합회(AFF)는 2003년 12월 10일 한중일 3개국 패션협회 회장들이 동경에서 발족식을 갖고 2004년부터 각국을 순회하며 연차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발족 이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가입하여 현재 6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FF 발족은 공석봉 회장, 코디오 정기자 대표, 인터플랜코리아 윤정옥 대표, F1 박경로 대표, 문화아트 유용범 대표, 대솔인터내셔널 김점한 대표, 사라제이 안병은 대표, 인재개발연구소 허용구 소장, JK디자인랩 홍재희 대표 등의 창립 주축 멤버들이 패션협회와는 별개로 추진해 왔다.

초대 회장에는 공석봉 회장이 선임되어 AFF의 목적과 구성, 운영 방안 등 초기 연합회의 골격을 세웠으며, 2006년부터 SD패션디자인학교 김종복 학장이 2대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오면서 2007년 3월 29일에는 (사)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의 법인허가를 받는등 AFF의 위상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AFF의 목적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회원사가 늘지 않고 연차총회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어 다소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분야가 같아 패션협회와 상충되는 일이 잦았고 국가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원대연 회장이 앞장서 양 협회의 통합을 여러 차례 설득해 왔다.

이에 2008년 7월 14일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과 AFF 김종복 회장간의 회합에서 AFF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양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2008년 12월 29일 AFF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패션협회와의 통합을 결의하고 2008년 12월 30일 양 단체간 통합협약서를 체결했다. 2009년 2월 23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공식 승인하고 3대 회장으로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을 선임했다.



# 2010

##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장 활동

원대연 회장은 2004년에 취임한 이후 서울패션위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당시 서울패션 위크를 주최해 온 패션협회는 디자이너그룹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에 좌지우지되는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을 설득해 통합 컬렉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5년에는 SFAA그룹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통합 컬렉션을 개최했고, 국내 최초로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나누어 패션쇼를 치렀다. 그러나 그 뒤 전체 예산의 90%까지 불어난 서울시가 행사를 주도해야 한다며 서울통상진흥원이 적극 개입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0년부터 운영하게 되었고, 패션협회는 부당하게 손을 떼게 되었다. 서울통상진흥원으로 이관된 후 진통과 잡음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대연 패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 2010년부터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원대연회장은 조직위원장을 맡은 뒤 이제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할 때라며 우리의 다음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취임인사에서 거듭 강조했다.

“패션이나 디자인산업은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60~70년대 한국을 부흥시킨 섬유산업이 제조업이었다면, 2000년대 한국을 다시 부흥시킬 패션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창조 산업, 진정한 지식 서비스산업이죠. 지켜보십시오. IT뿐 아니라 패션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겁니다.”

승인 이후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인터플랜코리아의 윤정옥 대표, 문화아트 유용범 대표, AFF 유수연 기획이사 3인이 실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 6월 30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EXR 민복기 대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GSGM 이진순 회장을 AFF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위비스 도상현 대표 등 12명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또 초대 공석봉 회장을 고문으로, 2대 김종복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통합 이후에도 AFF는 승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패션산업 지원예산 확보 등을 위해 패션협회와 특수 관계를 갖고 있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대연회장은 이미 국내 패션시장의 50% 이상을 외국 브랜드가 장악한 상태이며, 우리도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서울패션위크가 국내용 디자이너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문화행사에 그쳤다면, 조직위가 가동된 이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국내 디자이너를 진출시키는 패션쇼도 실질적으로 바이어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마켓 중심의 쇼로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선언했다.

서울패션위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 이태리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인젠가는 그들처럼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파는 것이다. 과거 각 디자이너그룹끼리 참가 디자이너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선정하고 심사기준도 국제경쟁력(수출)에 두었다. 단순히 쇼를 통한 자기과시나 문화행사가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행사 **Business Friendly**에 모든 평가기준을 두었고, 비즈니스 최우선을 위해 디자이너 중심에서 바이어, 프레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원대연회장은 국내에서 유명한 기성 디자이너가 줄 서 있어도, 해외 바이어가 보기에 신인 디자이너의 디자인이나 가격 경쟁력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신인디자이너를 선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즈니스 효과가 없는 패션쇼는 단지 문화행사나 이벤트에 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패션위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원대연 회장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 기자간담회

단순히 쇼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 구조까지 바꾸도록 자극하는 게 목적이라며,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10년쯤 뒤에는 놀라운 발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또 한류 드라마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채널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패션디자이너 알리기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인사이동이 잦은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로 되어야 서울패션위크가 육성될 수 있다는 원대연 회장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서울시 구위관계자는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하였다. 그 결과 서울패션위크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한 한국 패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는 서울패션조직위원회 법인이 2010년 발족 출범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서울시 실무진의 지나친 개입과 관여로 조직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갖가지 갈등과 곡절 끝에 2년 만에 원대연 회장은 조직위원장직을 물러나고 다시 서울통상진흥원으로 운영권이 되돌아가게 된다. 그 뒤 내부 갈등으로 서울통상진흥원의 패션센터가 해체되고 지금은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가 발족되고 지금은 신진디자이너그룹과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시스템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면서 언제 한국 디자이너가 세계화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패션선진국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관료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인 패션협회가 맡고 있다. 머지않아 원래 소유권자인 패션협회로 되돌려질 때 비로소 바람직한 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① 서울패션위크 10주년 기념 행사장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과 함께  
② 서울패션위크 관람중인 원대연 회장  
③ 서울패션위크 행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대연 회장





패션넷코리아 리플렛



한국패션협회\_패션넷코리아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 패션넷코리아 통한 온라인 정보 발신 강화

지식경제부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사업 중 '패션지식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패션넷코리아 www.fashionnetkorea.com는 패션관련 정부 지원사업 결과물과 패션관련 소비자, 시장, 트렌드, 유통, 교육, 행사 등 모든 패션 정보가 수록된 포털사이트로, 2010년 한국트렌드앤드칼라센터에서 사업을 이관받은 후 패션콘텐츠 강화, 섬유/패션 사업결과물 DB화, 시스템 구조개선, 검색기능 강화 등을 통해 2014년 말 기준 7만4천 명 회원과 210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7개국의 해외 리포트 10명과 국내 리포트 10명을 참여시켜 양질의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으며, 정부사업 결과물 DB의 e-book 형태 제공, SNS 활용을 통한 정보 확산,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발족 활동 등을 통해 국내의 대표적 패션 포털사이트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패션, 문화에 물들다'

패션협회는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중앙계단과 박물관 로비 등을 활용하여 패션과 문화,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실험성이 돋보이는 '한국 패션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패션, 문화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와 그래픽 공간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시각에서의 패션과 문화의 접목을 보여 주었다.

행사의 장을 여는 30일 개막식에서는 입체 비디오 매핑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화려하고 웅장한 미디어 아트와 패션쇼가 함께 연출되었다. 전시회는 전통에 투영된 한국의 색을 보여주는 '패션 리와인드', '패션으로 문화를 색칠하다'를 테마로 선보이는 '패션 플레이', '패션, 빛으로 꿈을 말하다'를 주제로 선보이는 '패션 포워드'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되었다.

'패션 리와인드'에서는 한국 문화의 역사와 전통으로의 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이너 박동준, 이도이, 최복호, 하상백과 그래픽아티스트 강병인, 김호득, 차영석, 홍지윤이 협업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계단에서 진행된 패션쇼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 패션쇼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 행사장 전경

패션으로 문화를 색칠하는 '패션 플레이'에서는 패션디자이너 장광효, 이석태, 이진윤, 임선옥이 공간디자이너 김백선, 김영재와 함께 작품을 선보였다. 또 패션과 미래의 기술을 결합하는 '패션 포워드'는 패션디자이너 박운수, 스티브J&요니P와 미디어 아티스트 뎀(김민선&최문선)이 함께 풀어냈다.

이에도 패션쇼와 전시의 테마를 바탕으로 한 3D 패션 필름 상영관도 운영해 영화 속 패션을 감상하는 듯한 이색적인 입체 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 행사를 통해 패션협회는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패션문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중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 2011

## 패션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2011년 2월 28일, 문화부 정병국 장관과 제일모직 이서현 부사장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패션문화산업 정책간담회'에서 원대연 회장은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부처별,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패션정책과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패션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동덕여대 최현숙 교수에게 의뢰하고 충북대 김수갑 교수에게 감수를 요청하여 2011년 10월 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자 원대연 회장은 2012년 8월 22일 정병국 의원, 나경원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아쉽게 추진이 무산되었다.

2013년 패션문화진흥법에 관심을 갖고 있던 건대 법학대학원 이재경 교수 및 국회 홍지만 의원실과 입법 발의 추진 공조가 합의되어 구체적 제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타 특별법에 대한 로비문제 등으로 추진 여건이 마땅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시각, 제품, 환경, 포장 디자인 및 서비스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패션디자인을 포함시켜 산업디자인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합의하고 현재 그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2010년 코리아베스트드레서시상식에서  
문화부문 시상자 정병국장관과 함께



문화부 유인촌장관과 패션문화산업진흥을  
위해 협의하는 원대연 회장

## 제1회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성황리 개최

패션협회는 2011년 12월 26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패션 및 연관 분야, 학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제1회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행사를 개최했다.

원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디자인, 패션이 아닌 것이 없는 시대이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패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 위상도 낮다. 패션도 디자인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힘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삼성 이진희 회장이 1990년 초반에 "디자인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삼성그룹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패션은 그 누구도 앞장서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째, 패션은 지식정보,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문화창조산업이다. 둘째, 앞으로는 패션 아닌 것이 없다(Everything is Fashion). 좁은 의미는 옷과 주변상품이지만 넓은 의미는 자동차, 전자, 건축, 미용 등 인생의 라이프스타일 모두가 패션이다. 셋째, 20~30년 후 동북아시아가 도래한다. 유구한 역사문화 전통을 가진 한·중·일 3국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고, 패션 또한 파리, 밀라노에서 서울, 북경, 도쿄로 이동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온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100년 어워즈 행사를 추진한 것이며 협회라도 앞장서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행사를 추진한 그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사업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 디자인업계의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대 조동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자부문 정국현 삼성전자 디자인 통합부서장, 자동차부문 차종민 홍익대학교 교수, 건축부문 박기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디자인부문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그리고 KBS, MBC 등 국내 굴지의 미디어 국장들을 동원하였다. 또 조운선 의원은 친선대사를, 가수 윤행주는 홍보대사를 기꺼이 맡아 주었으며,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시상을 해주었다.

이 위원회에서 다른 시상식과 차별화된 몇 가지 중요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한국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00년 동안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시한다. 야구에서 피쳐 못지않게 포수가 중요하다.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과 스폰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직접 수상하고 대리수상은 불가하며 본인 유고시 30초짜리 동영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스폰서와 연계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를 맡아 오던 정진한 대표가 손을 떼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상당히 진행해 온 행사를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 원대연 회장이 직접 예산확보를 위해 2개월여 동안 발 벗고 나서 힘겹게 2억 원을 확보하고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수상 대상자였던 차범근, 윤복희 씨가 참석하지 못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연말이라 CEO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원대연 회장은 큰 보람도 느꼈다고 회상한다. 서울대 패션학과 교수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말해 줄 것이 생겼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었다는 점에서 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다. 또 기꺼이 친선대사를 맡아 준 조운선 의원과 홍보대사를 자임한 가수 윤행주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패션 분야의 아카데미상으로 키우고 싶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 제1회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Korea Fashion Centurial Awards 2011*

한국패션100년어워즈 브로우서



《위 에서 부터》

한국패션100년어워즈 개막식 에서 인사말씀중인 원대연 회장  
 한국패션100년어워즈 비전선모식  
 한국패션100년어워즈 영예의 수상자들과 함께  
 한국패션100년어워즈 홍보대사 윤형주 한빛기획 회장 위촉장 수여  
 한국패션100년어워즈 자문위원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위촉장 수여  
 한국패션100년어워즈 친선대사 조윤선 의원 위촉장 수여

##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수상내역》

### 패션부문

내셔널 브랜드	제일모직 갤럭시
디 자 이 니	노라노
백 화 점	신세계백화점
소 핑 몰	두산타워
방 송	온스타일
일 간 지	매일경제신문
건 문 지	이명희 보그코리아 편집장
교 육	김민자 서울대학교 교수
뷰 티	박준뷰티랩
연 출	이재연 모델라인 회장
포 토	김중만 벨벳언더그라운드 대표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모 델	송경아

### 패션+ 부문

전 차	강윤제 삼성전자 상무
자 동 차	이병섭 현대자동차 스타일링 실장
건 축	송효상 이로제 대표
제 품 디 자 인	현대카드
해 외 한 인	김영자 FIT 교수
엔터테인먼트	원더걸스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1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의 신년만찬회에 손석화 디자이너와 함께 참석한 원대연 회장은 모 백화점의 일방적인 퇴점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게 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패션협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회방문 및 국회청문회, 공중파 TV 및 대인론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소매업법 제정과 백화점 판매수수료 3~7% 인하 조치를 이끌어냈다.

공정위 대규모 소매업 분야 공정거래구축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률초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정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 박선숙 의원 입법발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제를 발표하고,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실을 방문하여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국회 지경위 소속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동반성장 공청회, 민주당 정책위 의원 5명과의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입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별도 입법을 준비 중이던 이사철 의원을 방문해 입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박선숙 의원실, 이사철 의원실 3개 기관에서 추진하던 유사법안을 통합하여 2011년 10월 28일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계기로 공정위, 산업부, 백화점, 국회 등에 패션협회가 패션의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로서의 인식과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 젊은 디자이너를 위한 인디브랜드페어 개최

2011년부터는 자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장 한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는 인디디자이너들의 국내의 유통망 연계를 위한 인디브랜드페어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미 1985년부터 시작해 2004년까지 종합전시회 성격으로 개최했던 서울패션페어의 실패를 본보기삼아 규모는 작으나 참가 디자이너와 방문 바이어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섬유센터 2, 3층에서 74개의 인디디자이너들이 참가한 제1회 인디브랜드페어가 개최되었는데,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 편집샵, 패션업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실질적으로 협업이나 사업 등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7백여 명의 바이어와 관련인사가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내실 있는 전문 전시회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전시장을 방문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입장이 불허되어 되돌아가기도 하였으며, 참가 디자이너와 바이어와의 1:1 사전 미팅 주선 등을 진행한 결과, 참가 디자이너들의 80% 이상이 차기 행사에 재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디브랜드페어는 처음 기획한 전문전시회로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의 방한이 증가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중국진출 희망 인디디자이너들을 선정해 중국 상하이에서의 별도 전시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



2011  
 INDIEBRANDFAIR  
 INDIEBRANDFAIR  
 INDIEBRANDFAIR

##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 주관



문화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상징화한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 Korea Heritage Fashion Show를 2011년 10월 2일 오후 7시 경복궁 내 흥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문화계, 주한 외교사절, 국회의원, 일반시민, 학생 등 약 4천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패션협회가 주관한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재해석, 패션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와 가능성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고궁을 무대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행사로 기획됐다.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는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보와 보물 등 유형 문화유산'과 '전통놀이 문화 등 무형 문화유산'의 문양, 색상, 영감 등을 모티브로 정상급 패션 디자이너 11명의 개성과 감각이 흠뻑 녹아들어 우리 문화유산의 우아함과 디테일함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기회가 되었다.

궁궐의 색과 선, 전통문양 등 고유의 미와 철학을 재해석한 첫 테마는 유형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과거와 현재,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모습을 교차시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오고가는 듯한 모습을 자아냈다.





전통의상의 대가인 김혜순, 이서운 디자이너와 현대의상의 박윤수, 박춘무, 장광효 디자이너의 상징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담은 무대는 지나온 역사와 새로 만들어 갈 역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국보와 보물이 지닌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번째 테마로 진행되는 '전통놀이 문화'는 강동준, 곽현주, 이주영, 임선옥, 하상백, 홍혜진 디자이너를 통해 무형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펼쳐 보였다. 디자이너들은 그네,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놀이문화'의 맥을 유지해 온 전통놀이에서 받은 영감으로 특색 있는 연출과 개성적인 디자인을 착안, 창의적이고 모던함을 담은 스타일을 보여 주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를 통해 전통에 모던함을 더한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인 11명의 디자이너는 "이번 패션쇼는 놀라운 동기부여의 원천인 문화유산을 새로운 작업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과 가치를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또 행사를 주최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선조의 멋과 아름다움의 가치가 담긴 퍼포먼스를 통해 전통의 뿌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패션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패션협회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 김명호 상근 부회장 취임

2011년 4월 18일 제2차 이사회에서 협회 사무국 상근 책임자로 김명호 부회장을 선임하였다. 김명호 부회장은 코오롱 상품본부장과 슈페리어 전무 등을 역임한 전문 패션인으로 풍부한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식견으로 정보, 교육,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년 만에 패션업계 CEO로 복귀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총회 개최

아시아 6개국 패션단체들의 연합체인 아시아패션연합회(AFF)는 창립 이후 매년 6개국을 순회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4년 한국에서 개최된 창립총회 이후 7년 만에 한국총회를 대구패션페어와 연계해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11년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된 AFF 한국총회는 6개국 순회 개최 후 두 번째 순회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AFF 참가자들과 한국기업 간 또는 AFF 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동아시아 패션 중심시대에 대비하여 AFF 각국의 전통과 문화적 특징을 소개했다.

아시아 6개국의 고유문화를 입힌 각국의 의상 디자인 패션쇼는 서양과 다른 Something New Different한 것을 보여 주고, 이를 세계로 확산하여 20~30년 후 동북아시아에 대비하자는 원대연 회장의 2009년 하노이총회 제안에 따라 매년 각국 총회 때마다 관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AFF 한국총회는 EXCO, 대구패션센터, 인터불고호텔, 계명대 등의 장소에서 회장단 회의, 개회식, 축하패션쇼, 환영만찬, 패션포럼, 비즈니스미팅, 폐막만찬, 산업 및 문화 탐방 등이 이루어졌으며 공동 웹사이트 [www.asiafashionfederation.org](http://www.asiafashionfederation.org) 시범운영, 아시안 디자이너클럽 운영 등이 합의되었으나, 비즈니스 활성화 의제에 대해서는 각국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추후 실무자협의를 통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AFF 한국총회를 위해 대구시가 후원을 하였고, 특히 이범일 대구시장이 오찬장을 방문해 각국 참가단을 격려했으며, 계명대 이승훈 학장은 폐막만찬 행사장 제공과 패션포럼 진행 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AFF 한국협회 회원사들이 호스트로서 책임감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위비스 도상현 대표와 EXR 민복기 대표, GSGM 이진순 회장 등이 부족한 행사 경비를 협찬해 주었고, 문화아트 유용범 대표는 행사 카탈로그와 포스터 제작 등을, JK디자인랩의 송재희 대표는 전시장 내 6개국의 전통의상전과 트렌드관의 기획을 맡아 수고해 주었다.

특히 코디오 정기자 대표와 함께 AFF 발족의 실질적 산모 역할을 담당했던 인터플랜코리아의 윤정옥 대표는 AFF 한국총회의 전체 기획과 패션포럼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개회식과 폐막식의 인테리어부터 진행, 각국 간의 연락까지 음으로 양으로 모든 부분에서 AFF 사무국과 손발을 맞춰 자문하고 협조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회원사들의 협조 덕분에 AFF 한국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① 2010년 제7회 AFF 중국 총회
- ② 2011년 AFF 한국총회에 참석한 6개국 회장단
- ③ 2011년 AFF 한국총회에서 개최된 중국디자이너 패션쇼
- ④ 2011년 AFF 한국총회에서 인사말씀중인 원대연 회장
- ⑤ 2014년 AFF 태국 총회
- ⑥ 2009년 AFF 베트남 총회에서 각국의 고유한 의상을 입힌 패션쇼를 진행할것을 제안하는 원대연 회장

# 2012

## 유통 합리화 활동으로 판매 수수료 인하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유통합리화 활동을 통해 연간 5~20억 원 거래규모의 중소 패션업체들을 대상으로 3개 백화점은 1%, 3개 대형마트는 2%의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를 이끌어냈다.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은 민간, 정부 인사 40여 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대중소기업 유통분야 상생협력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갈등의 폭을 줄이고 실현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2012년 10월 2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백화점 및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제도정착을 건의했으며, 11월 13일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건의했다.

### 기업 유통분야 상생협력

2012. 8. 9(목)



2012년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후  
중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함께



2012년 청와대 신년간담회 참석 - 백화점 현안 건의

## 제1회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패션디자이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패턴사, 즉 모델리스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2년 10월 26일 유어스 빌딩에서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차 패턴심사, 2차 실물제작심사,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금 각 5백만 원이 수여되었는데, 숙명여대 손희순 교수와 서완석 입체패턴연구소 소장이 많은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참가자 43명과 수상자들에게는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인턴십 참가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콘테스트 시상식과 연계해 역대 수상자들의 패션쇼를 진행했고, 서교동 자이 갤러리에서 역대 수상자 작품 전시와 함께 해외 패턴기술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교류 워크샵 등의 부대행사를 개최해 모델리스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다.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실물 및 면접심사



2012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실기시험



2012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해외패턴전문가 Oqura Masuo 초청 기술전수교육



2012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영예의 수상자들

## 마케팅과 세일즈 강화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2009년부터 산업부의 지원 하에 PFIN에서 진행하여 왔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글로벌 기업 역량 단계에서 글로벌 마케팅 및 세일즈 강화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패션협회로 사업이 이관되어 넘어 왔다.

사업 초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15개 업체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가다가 최종단계에서 3개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고자 의도되었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정업체들을 위한 특화사업과 일반업체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는 범용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과 상하이 슈퍼K 컬렉션, 뉴욕 K-Fashion Sensation, K-Fashion Project in Milano, K-Fashion Project in Shanghai 등 한국 패션제품의 수준을 홍보하는 글로벌 마케팅 강화사업, 그리고 상하이 패션비즈니스센터 운영, 중국 비즈니스교류회, 뉴욕 쇼룸 입점 등의 글로벌 세일즈 강화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브랜드의 해외 매출비중 확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패션 선진강국 진입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관주도 글로벌브랜드 육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패션기업들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연 2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은 패션산업도 IT, BI와 같은 성장산업이라는 원대연 회장의 건의에 따라 2007년 기획재정부가 패션을 국가기반화산업으로 정하고, "2015년까지 3개 이상의 글로벌브랜드를 육성한다."고 선언한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이다.



2012년 뉴욕 K-패션 센세이션에서 뉴욕컬렉션 편 앨리스 디렉터와 함께



2013년 협회 산하 상해비즈니스센터 개소식 테이프커팅



2013년 뉴욕 ENK 인터내셔널 부사장과 함께



2014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이태리수교 130주년기념 패션쇼에서 인사말씀하는 원대연 회장

## 동대문 수출지원센터 운영

2012년도에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당시 서울패션센터 조직의 해산으로 운영 주체가 없어진 동대문 수출지원센터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패션협회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동대문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으며, 이후 서울시에 운영권을 이관했다.

동대문 수출지원센터의 사업은 동대문상공 해외수출 지원이나 해외마케팅 교육을 진행하는 수출 지원센터 운영, 구매안내 데스크운영, 패션 트렌드 및 마켓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운영 등이었으며, 특히 동대문 상인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주상담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인 미니 바잉쇼와 패션큐브 행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12년 동대문 미니 바잉쇼에 참석하여 전시참가자를 격려하는 원대연 회장

2012

## 에너지 절약형 '휘들옷' 공동사업 진행

'휘들옷'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름철 패션 상품 개발·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2년 간 시행했던 사업의 공동브랜드 명이며, '산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시원, 상쾌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옷'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패션상품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직장인을 위한 신개념 비즈니스 '정장 대체의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진행된 '휘들옷' 프로젝트에는 코오롱FnC, 동광인터내셔널과 신성통상, 위비스, 카루소, 패션그룹 형지 등 총 9개 패션기업 9개 참여기업들이 선정되어 PFIN에서 제시한 상품기획 방향을 참고하여 상품을 개발했다.

신성통상(지오지아)은 청량감 있는 소재를 사용한 재킷과 바지, 형지(크로커다일 레이디)는 대나무 소재의 바지와 블라우스, 동광인터내셔널(스위트숲)은 통풍성이 좋은 랩스타일의 팬츠 등을 '휘들옷'으로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복도에 전시된 '휘들옷'



에너지 절약형 '휘들옷' 전시전경

## 패션협회 사무국, 사무실 매입 이전

1985년 창립 당시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 둥지를 틀었던 패션협회 사무국은 1989년 삼성동 무역센터로 이전하였다가 1992년 대치동 섬유센터로 사무실을 옮겨 20년 가까이 지냈다.

섬유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건물 내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수출입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함께 입주하고 있어 여러 모로 편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설립 당시 3명에 불과하던 직원이 2012년 이후 20여 명으로 늘어나 섬유센터내에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체 사무실을 갖게 되는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성수동에 위치한 신축 지식산업센터 180평을 분양받아 임원실, 회의실, 정보실, 교육실, 사무실 등으로 인테리어를 완료한 후 2012년 10월 27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이후 쾌적해진 사무환경은 물론 잦은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실, 회의실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임대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 김기산 협회 상근 부회장 선임

2012년 2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패션연구소장을 역임한 김기산 상근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김기산 부회장은 이미 제일모직 근무 당시부터 패션협회는 물론 패션업계, 섬유패션단체, 패션전문지, 학계 그리고 정부 인사 등과도 폭넓은 교류가 있었으며, 원만한 성격에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한 협회 신뢰감 구축은 물론 급속히 확대된 내부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책임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 2013

##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매입이라는 제도에 있다는 패션협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현행 특약 매입제도를 직매입제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T/F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기업협력국장과 유통거래과장, 기업거래과장, 가맹거래과장, 정보화과장 등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서강대, 중앙대, 을지대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변호사 그리고 패션협회와 백화점협회로 T/F가 구성되었다.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 4차례의 회의는 1차 특약 매입거래의 연혁과 현황 토의, 2차 특약 매입제도의 경쟁력 분석 토의, 3차 특약 매입제도의 법적 분석 토의, 4차 특약 매입제도와 관련한 거래상 문제점 토의로 진행되었다. 패션협회와 백화점협회 간의 사활을 건 논쟁이 이어져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가 저녁 7시나 8시까지 이어졌고, 이어 양 협회는 입장을 같이 하는 교수, 변호사들과 함께 별도 저녁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백화점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직매입 전환은 바잉 능력이나 MD 수준, 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체에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패션협회와 적극적인 자율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양측 실무자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유통거래 관행과 제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이견을 보여 왔던 두 단체가 회원사들의 실익을 위해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민간 차원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는 MB정권의 지속적 동반성장 상생협력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상생협약은 2013년 12월 11일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던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의 1부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국회 정병국, 김기현, 이현재, 전순옥 의원과 산업부 등 정부인사, 패션업계와 백화점업계 3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과 백화점협회 장재영 회장이 체결했다.

체결된 상생협약에는 양 단체가 공정거래 질서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신진 디자이너 육성,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해외 유통시장 견학, 입점 상담회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공동현안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정례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계기로 백화점협회는 상생협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패션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패션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원대연 회장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었으며, 김기문 회장의 공헌에 감사 표시로 2014년 12월 특별공로상을 시상하였다.

## 자체 민간사업 발굴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민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3년부터는 몇 가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에 이른다.

먼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면세점 사업이 2015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패션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하면서 향후 이어질 시내 면세점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 COEX몰 내에 중소 패션브랜드나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중소패션 전용매장을 확보하여 중소 패션업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제4회 인천 실내 무도 &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환영 행사

제4회 인천 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AIMAG) 공식 환영행사가 2013년 6월 28일,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45개국 주한대사와 참가국 위원단, 초청 VIP 및 기자단 등 3백여 명을 초청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패션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부채춤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아시아가 꿈꾸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진행했으며, 루비나, 장광효, 박춘무, 최복호, 박윤수, 신재희, 곽현주, 홍혜진, 고태욱, 홍은주 디자이너 등이 참가해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렸다.

먼저 루비나는 '빛'을 테마로 한국 고유의 장식인 옷고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장광효는 한국적인 꽃문양과 조각보를 모던한 느낌으로 표현했으며, 박춘무는 빛을 각으로 표현한 새로운 패턴과 실루엣의 분할을 작품에 반영해 선보였다. 최복호는 '바람'을 테마로 우주복을 입은 외계전사를, 박윤수는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신재희는 동양 특유의 절제된 디테일과 자연과의 교감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① 제6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중 진행되었던 제조-유통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서 체결식  
② 제조-유통 동반성장상생 협약식 체결후 패션협회 원대연회장, 백화점협회 장재영 회장

'춤'을 테마로 하는 곽현주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홍혜진은 태극기의 '건감이곤'을 모티브로 한 직선적 절개라인으로 민족의 얼을 표현하였고, 고태용은 부조화스러운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새로운 스타일로 제안하였으며, 홍은주는 태극문양을 변형한 새로운 실루엣을 각각 선보였다.

또한, 참가국이 대표의상 퍼레이드, 인천시립무용단과 양상블 시나위, 정동극장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한국의 맛을 아시안게임 슬로건의 의미에 담아 표현했다.

## 서울방송 '패션왕코리아' 제작 방영

2013년부터는 패션디자이너와 한류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SBS '패션왕코리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매주 주말 밤에 1시간 분량으로 제작되는 패션왕코리아는 SBS 공중파 본방송 이외에도 SBS fun 등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재방되고 있으며, 주말 심야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2~3%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패션업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패션을 사랑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패션디자이너와 아티스트 또는 연예인을 한 팀으로 구성해 총 8개 협업 팀이 매주 주어진 미션별 패션 융합상품을 개발하여 서바이벌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려내는데, 우승팀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베를린 프리미엄 전시 참가를 지원했다.

2013년 패션왕코리아 시즌 1 출연자는 박윤정-브라이언, 지일근-티파니, 이주영-보라, 정두영-김나영, 이지은-윤진, 김홍범-이지훈, 장형철-임동욱, 남윤재-추미림이었다. 시즌 1의 우승은 디자이너 정두영-김나영 팀이 차지했다. 정두영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 때 이후, 직접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매회 의상을 제작하고, 패션 피플 앞에서 설명하며, 그 자리에서 평가받는 과정이 디자이너로서 대중과 함께하는 패션이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기회였다."고 감회를 밝혔다.

2014년 패션왕코리아 시즌 2에는 최범석-클라라, 곽현주-황광희, 로건-윤진서, 한상혁-정준영, 고태용-지코&피오, 송혜명-조세호&홍진경, 양희민-선미 팀이 출연했다. 우승은 디자이너 최범석-클라라 팀이 차지했다. 클라라와 조를 이룬 최범석은 '클라라X최범석'이라는 이름으로 매회 새롭고 감각적인 의상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2015년에는 한-중 교류 콘텐츠로 패션왕코리아 시즌 3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회 인천실내무도\_아시아경기대회 공식환영행사 패션쇼



제4회 인천실내무도\_아시아경기대회 공식환영행사▲





## '명품' 대신 '해외 고가 수입품'으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2013년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유통 관련 주무 부처에서는 고가 수입 브랜드를 '명품'으로 표시해 온 낡은 관행을 없애고 해외 고가 수입상표 제품을 '명품'이라는 용어 대신 '해외 유명상표(브랜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이다. 그는 해외 고가 사치품이 국내시장에서 '명품'이라고 불리면서 유통시장의 갑 노릇을 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 늘 거침 없이 질타했다. 명품이라는 말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럭셔리 구즈(Luxury Goods)라는 원어에 맞게 호화 사치품 또는 고가 수입품으로 불려야지 '명품'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근 일본과 중국도 '럭셔리 구즈'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원대연 회장은 수입이 금지되던 15년 전까지만 해도 호화사치품이라며 비난을 받던 수입제품이 어느새 고급과 저급 구분 없이 모두 명품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명품'이라는 단어 사용의 오류를 지적했다. 즉 명품이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정성을 쏟아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만든 희귀 제품을 일컫는 것으로,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정도라면 명품으로 불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수입 브랜드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기성품이고, 더욱이 일부는 중부 유럽 인근이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생산해 자국 제품인 것처럼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싸구려 유럽 브랜드들도 모두 명품으로 둔갑을 해서 너도나도 명품 대접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브랜드는 다 좋고 비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이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고 광고도 없이 명품이라는 한 마디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 또한 이같이 수입 브랜드가 명품이면 국내 브랜드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영원히 명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 사치품이 언젠가부터 명품이라는 고유명사로 바뀐 것은 갤러리아 명품관이 개장하면서 언론이 앞장서 그렇게 호칭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언론계의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대연 회장의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원대연 회장은 2012년에는 각 언론사와 관련 중앙 부처, 백화점 등 유통업체, 패션업체, 학계 등에 직접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였고, 또한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행되는 「chief executive」 잡지에 기고한 명품 관련 기사를 번역해 각국 주한대사관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브랜드 지사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2년 말에 개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이를 다시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해외 유명 브랜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동경심과 충동적인 구매심리 등 사회 환경적인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는 곧 명품이라는 말의 오용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 원대연 회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나친 숭배는 백화점과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 간의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행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대연 회장은 토종 패션 브랜드들이 국내 백화점 성장에 일조했는데 이제 와서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거대 공룡에 의해 왕따가 되는 현실도 안타까워했다. 즉 해외 고가 사치품 업체들은 국내 고용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 브랜드는 국내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부자재도 국내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산해서 만든 완제품을 국내 유통에 들여와 고가로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서 가져간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내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만큼 국내 브랜드 못지않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명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때이다. '명품'이라는 작위는 KS마크처럼 검증된 최고의 제품에만 주어져야 한다. '수입품은 곧 명품'이라는 공식이 상식처럼 행세한다면, 세계적인 명품을 꿈꾸는 국내 패션계는 절망감밖에 남지 않는다. 애니콜 휴대전화가 해외에서 명품으로 대접받는 반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검증되지 않은 스위스 시계가 언론에 의해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로 포장되고, 이를 연예인들에게 고가로 팔아먹은 사기사건도 있었다.

우리도 우리의 패션을堂堂하게 해외에 팔 수 있는 독자적인 패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명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언론이나 패션업체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진정 명품의 조건을 갖춘 제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 2014

# 2014

##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활동

2013년 체결한 백화점협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상하반기 상생협의회가 개최되어 공동사업과 현안들을 협의하였고, 또 이들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한 회장단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되었다.

2014년 4월 25일과 10월 31일 개최된 1, 2차 상생협의회에는 5개 백화점 상품본부장(롯데 박호성 전무, 현대 박동운 부사장, 신세계 손영식 부사장, 갤러리아 유재식 상무, AK 이천우 부사장)과 위비스 도상현 대표 및 아가방, LF, 쏠리드옴므, 제시뉴욕, 김영주, 몬테밀라노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제조유통 실무자 워크샵, 동반성장 자금, 입점상담회, 바자회, 백화점협회장상 시상 등 향후 추진할 공동사업들을 협의하였고, 또 고객 DB 적극 활용, 제조-유통 콜라보레이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014년 6월 20일에는 반얀트리호텔에서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제조-유통을 대표하는 회장단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협의하는 의미 있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이원준 대표, 신세계 장재영 대표, 현대 김영태 대표, 갤러리아 박세훈 대표, AK 서광준 대표 등 5개 백화점 대표와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 남영비비안, 로만손, 영원무역, 한아인터내셔널, YK038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점검하고 기타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10일 제7회 코리아패션대상 시상식 행사에는 5개 백화점 대표들과 함께 장재영 백화점협회 회장(신세계백화점 대표)이 참석하여 남영비비안 김진형 대표와 린에스엔제가 오서희 대표에게 우수협력업체상을 시상하였다.



- ① 제1차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참석자
- ② 제2차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참석자
- ③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자
- ④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회장단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당단체 대표님



### 백화점-패션업계 실무자 능력향상 워크샵 실시

제조-유통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실무자 워크샵 교육은 패션협회와 백화점협회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리테일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 및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 제조-유통간 교육 등을 위해 LF 이룸연수원에서 2014년 6월 18일~20일과 11월 5일~7일 3일간 2회 개최했다. 양 산업 종사 실무자 95명이 참석하여 국내외 유통트렌드, 빅데이터 마케팅전략,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전략 등의 강연 수강 후 공동테마를 발굴하여 토론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양 산업의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워크샵이었다.

상호 필요한 상생 파트너이면서 양속관계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실무자 워크샵은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하남 패션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2014년에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적정부지에 30여 개의 패션업체 본사와 함께 디자인 기능 등이 복합된 패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착수되었다.

그간 이천 패션유통 물류단지 사업 성공을 지켜본 동두천, 화성 등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패션협회와의 공동개발 사업을 제안해 왔었는데, 지자체의 의지나 입지여건,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하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2014년 3월 7일에는 하남지역 국회의원인 이현재 의원실에서 패션협회와 산업부, 국토연구원이 참석하여 하남 패션복합단지 추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추진방식, 성격, 입주시설 등에 대한 기본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어 2억 원의 예산으로 국토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다.

하남이 복합단지 조성에 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담은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결론에 따라 원대면 회장은 하남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현재 의원, 이교범 하남시장 등과 조성원칙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현재 하남 패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적정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업체 확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결국 지난 1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신화를 일궈낸 이천 패션유통 물류단지 성공모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향후에도 유사한 후속사업에 이어지게 될 것이다.

## 패션산업 해외 마케팅인력 양성사업 실시

글로벌시장 환경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나 문화를 판매하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에 맞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수립과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도부터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창출을 위한 패션비즈니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훈련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 진행방식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총 20시간씩의 해외 마케팅 전략 과정, 해외 브랜드 전략 과정, 해외 문화 마케팅 과정, 해외 Apparel Merchandising 과정, 해외 Retail Merchandising 과정, 해외 경쟁력강화 이슈 과정 등 6개 과정을 3회에 걸쳐 시행하고, 275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다.

▼ 패션산업 해외마케팅인력양성사업 교육



▲ 패션산업 해외마케팅인력양성사업 교육중 분임토의

## 봉사정신으로 10년간 사심 없이 패션계 발전을 위해 전력

원대연 회장은 국내 최대 패션전문기업인 제일모직 사장 출신으로서 패션기업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장에 취임한 이후 패션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정보제공, 교육사업, 디자인 육성사업 등을 통해 패션협회 재정을 정상화시키고, 패션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

원대연 회장은 2004년 취임 이후 줄곧 “회원사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패션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패션협회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 세 가지 화두를 늘 염두에 두고 고민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10년 대장정 프로젝트로 추진한 ‘이천 물류단지 건립’이 이러한 고민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시행 초기에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회원사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원대연 회장이 투지와 결단력 있게 밀어붙인 결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숙원사업도 해결되었지만, 패션협회로서는 27년 만에 자체 사무실을 구입하는 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패션협회 회장직을 맡아 40여 년 동안 패션기업에 종사하며 배운 노하우를 패션업계에 환원한다는 봉사정신으로 사심 없이 열심히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모 섬 유월간지 대표로부터 이천 물류단지 관련 차명계좌 운영의 비리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에 검찰 제출 요청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까지 적극 협조하며 1년여에 가까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항고심에서도 1차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과 사정기관의 무혐의 공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12대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원대연 회장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과거에 이미 해명한 내용들이었다. 원대연 회장은 본인 노력의 산물이자 패션산업을 위한 공적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론인과 회원사들에게 향간에 떠도는 본인과 관련된 미확인 사실을 해명했다.

2014

한편 2009년 총회부터 시작된 일부 회원사에 의한 원대연 회장 흔들기는 2012년과 2015년 총회까지 계속되었다. 원대연 회장이 그동안 패선협회를 위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1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라든가 혹은 "본인이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부 세력의 고의적인 흔들기는 회원사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절대 다수 회원사가 아닌 일부 패선인사들의 황당하고 고의적인 주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진 원대연 회장은 패선협회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2015년 2월 11일 총회에서 회원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2대 회장에 오르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 동안 힘들었던 입장을 토로했다. "협회 추진사업이 회원사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가 가치판단 1순위이며, 회원사가 최고의 고객임을 잊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협회와 패선산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사들과 함께 고민하여 본인을 이어 협회를 더욱 발전시킬 훌륭한 후임자를 추천할 것이며, 후임자가 일부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회장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통 기반을 물려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힘으로써 그간의 모든 의혹과 루머를 명쾌히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



최초의 실시간 양방향 스마트모바일 웹 eBook(모바일사이트)제작 서비스



만들기 복잡한 홈페이지는 버려라.

## e카달로그 모바일마케팅!

만들기 복잡한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기는 더 어렵다.  
이제 회사부터 상품까지, 모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PC까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홍보할수 있는 e카달로그.

(주)우리랑월드 010 9447 5687